

2013.10.18-10.24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3 9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37 / 2013.9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Cover Story



밝음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모두를 하나되게 하며
달렸던 관계를 이어줍니다.
한가위 인천!
하늘에 떠있는 명월(明月)처럼
모든 시민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서로의 관계가 실타래 풀리듯 회복되기를
그래서 모두가 참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作 김기충 010-5131-3146



CONTENTS

- 04 **소통과 화합**
- 06 **특집** 인천의 세계문화
- 12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인천의 오래된 서점
- 18 시 책읽기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
- 20 **오픈** 미리 보는 인천한국근대문학관
- 22 **인천의 속살** 화수부두에서 목선 만드는 '노아부부'
- 28 **아름다운 사람** 작은자야간학교 최성미 교사
- 30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신포환집
- 34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 36 **문화뉴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0회 정기연주회 外
- 38 **문화공연** 얼썬! 흥겨움에 어깨춤이 절로~ 外
- 40 **시정뉴스** 박근혜 대통령, 인천시 방문 外
- 44 **의정뉴스**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 '합격점' 外
- 16 **생활정보** 울목도서관 9월 문화예술 행사 外
- 50 **이달의 서평** 김난도의 내·일 外
- 51 **인천 사는 이야기** 미리 입어 보는 웨딩드레스 外
-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송도미추홀공원
- 58 **모닝 커피 한잔** 장희숙 도시공간활용연구소 대표

06 추석연휴, 티켓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올해는 추석연휴가 길어 마음이 더 넉넉하고 여유롭다.
'이참에 해외로 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비행기표는 벌써 동났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세계를 품에 안는 방법이 있다. 이웃집에 다녀오듯 가깝고 편하게, 세계의 문화와 사람들과 만나기.

22 화수부두에서 목선 만드는 '노아 부부'

어부에게 포구는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넓은 바다는 어부와 함께 생을 다한 어선들의 무덤이자 새로운 배를 만드는 어머니의 자궁이다. 어부의 재산목록 1호인 어선이 휴식을 취하는 곳, 화수부두 한구석에서 지금 또 한 생명 이 잉태되고 있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년 9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양진수(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인천, 엄마 손맛 같은 정겨움

독자 정계숙 (56 · 간석동)



정계숙님은 이 땅을 떠나본 적 없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화평동에서 태어나 현재 간석동에서 올케와 함께 작은 식당 '봉이고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운 손끝과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내 식구도 먹는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 이웃입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엄마 품과 같아요. 멀리 갔다 와도 늘 한자리에서 반겨주는 푸근함, 내 집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인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고맙게도 손님이 전해 주었어요. 이런 책도 있구나, 싶었지요. 인천에서 나고 살면서도 정작 모르는 게 많았는데, 책을 통해서 인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탁자 위에 비치해 두는데, 손님들께서 반가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다며 챙겨가기도 하세요.

인천에 하고 싶은 말 되돌아보면 인천은 많이 변했어요. 도시화되고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가 많아지는 등 문화적인 면도 발달했지요. 앞으로도 갈 곳과 쉴 곳이 더 많아져서 시민은 물론 타시도 사람들도 인천에 애정을 갖고 더 찾았으면 좋겠어요.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 주차하려고 하니 식당주인들이 밥을 먹어야 주차할 수 있다고 횡포를 부립니다.

을왕리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의 구유지(지목상 임야, 현실상 나대지) 주차 유도로 인해 이용객들의 민원이 잦아, 중구에서는 작년 일부 구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진했으나 주민과 마찰이 심해 폐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주 3회 현장단속을 하고 있으며, 향후 상가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발암물질 저장소 및 이송시설을 없애주세요. 어떻게 주거지 인근에 그런 시설을 허가할 수 있나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은 2007년을 전후로 공장 증설 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이 공장 증설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환경위해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응급실 직원들이 인력난 때문에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간다고 합니다. 인력 보강이 절실합니다. 인천의 유일한 시립병원이지 않아요.

인천의료원은 간호사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 2월에 간호사 2명을 채용해 응급실에 배치했으나, 최근 간호사 2명이 같은 시기에 병가를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지난달 2일에도 간호사 5명 및 응급구조사 1명을 채용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상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뮤직스팟에 참가한 뮤지션입니다. 무명의 뮤지션에게 간절한 무대를 음악을 듣지도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었던군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뮤직스팟 행사는 신인 뮤지션의 음악을 알리고 국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네트워킹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운영이 미흡하여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2지구 입주로 주민이 늘었는데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송내역으로 가는 버스는 14-1번 뿐입니다. 노선을 증설해 주길 바랍니다.

서창동 버스노선과 관련해 송내역 노선운행은 부천시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경기도(부천시)와 협의했으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 조정 신청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경기도와 재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번은 노선조정위원회(2013.6.18.)에서 3대 증차가 확정되어 관계 업체에서 차량 확보 시 즉시 운행할 예정입니다.

삼화고속 광역버스의 일방적인 감차로 승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삼화고속은 최근 수인선 및 7호선, 공항철도의 개통 이후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부노선의 감차(노선폐선 및 매각)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처리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가 주요 쟁점 사항을 조속히 협의하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삼화고속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

티켓 없이 떠나는 세계여행



추석. 휘영청 밝은 달,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로 마음이 풍요롭다. 더욱이 올해는 추석연휴가 길어 마음이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데..., '이참에 해외로 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비행기표는 벌써 동났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세계를 품에 안는 방법이 있다. 이웃집에 다녀오듯 가깝고 편하게, 세계의 문화와 사람들과 만나기.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순수로 빛나는, 미얀마사원



맑은 눈동자를 지닌 사람들의 성지. 미얀마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곧 불교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천500년 역사를 간직한 불교의 나라 미얀마 어디에서나 황금 빛 파고다(Pagoda)가 찬란히 빛난다. 그 성지의 빛이 바다 건너 이 땅에까지 머물러 비추고 있다. 부평에는 '미얀마불교전법사원'과 '담마두따불교협회' 두 곳의 미얀마사원이 있다. '담마두따불교협회'의 키티사라(Ven. Kittisara) 스님은 6년 전 고국을 떠나 머나 먼 이국땅에 자리 잡았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노동자는 무려 7천여 명. 스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찰 안팎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다. 놀랄 만큼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스님은, 신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찾아 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미얀마사람들은 외롭고 힘들 때 사원을 찾아 기도하며 안식을 찾아요. 한국에 미얀마사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심지어 마지막 가는 길을 불교식으로 치르지 못하고 외롭게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을 돕고 싶어서 한국

에 왔어요."

스님은 오늘도 불상 앞에 고요히 앉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 그 신성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초월한다. 불자가 아니어도 마음의 위안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품에 안는다.


"불교인, 기독교인, 이슬람인이란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에 구애 없이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한편 부평에는 미얀마가 작은 마을을 이루었다.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미얀마센터를 중심으로, 미얀마사원, 미얀마레스토랑 등이 오밀조밀 어울려 있다. 담마두따불교센터 바로 아래 층에도 미얀마 고유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글로벌 탑(506-1180)'이, 1층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온 식료품과 생활용품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가 있다.

위치 :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길 47 3, 4층
문의 : 521-5586, www.dhammaduta.info



봉주르 파리~ 프랑스문화원


 프랑스는 단순히 에펠탑과 개선문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영화,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문화로 우리 삶 곳곳에 스며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여전히 우리 기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 마르크 로세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설국열차'가 마음의 철로 위를 달리고 있다.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있는 '인천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에 가면 티켓 없이 프랑스를 여행할 수 있다. 문화관으로 들어서자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로비 한 편에 브라운관을 놓고 마련한 작은 영화관에선 프랑스 영상이 유유히 흐른다. 지난달 문을 연 미디어도서관은 프랑스문화원을 더욱 프랑스답게 만드는 곳. 문학서, 인문서 등 읽고 싶은 프랑스 책과 보고 싶은 영화 DVD가 빼곡하고, 프랑스 라이선스잡지까지 정기적으로 비치하고 있다.

문화원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개원한 어학원에서 프랑스어 강좌를 운영한다. 수업은 회화반을 비롯해 프랑스 어학능력 공인인증시험인 델프(Delf)시험대비반과 문법반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며, 매달 어른·청소년 100여 명과 어린이 40여 명이 수강한다. 특히 인천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봉주르프랑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원은 또 프랑스 영화를 상영하고 전시회와 공연 등을 선보이는 '시네마프랑스인천'을 정기적으로 열어, 달달한 프랑스 문화의 향기를 퍼트리고 있다.

위치 : 남구 주안로 83 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CAMF 1층
문의 : 873-5556, www.afincheon.co.kr



세계로 다시 날개 편, 제물포구락부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열강이 첫발을 디딘 곳이다. 1884년 중구에 조계(租界)가 형성되고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 미국,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조계제도는 1914년에 폐지됐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다. 자유공원 광장에서 남쪽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양철지붕을 얹은 서양식 건물 '제물포구락부'가 나온다. 1901년 러시아 건축가 사바찐이 지은 건물로, 1913년까지 서양인들이 무도회를 열고 스포츠도 즐기던 친목의 장이었다. 현재는 영상 스토리텔링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제물포구락부 천장에는 상들리에가 반짝이고 한 편에는 외국인들이 차와 술을 마시던 바가 남아 있다. 벽면에 액자처럼 걸린 스크린에선 개항기 영상이 아득히 펼쳐져 시계바늘을 한 세기 전으로 돌린다. 제물포구락부는 그 자체가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시 유형문화재. 그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인천국제문화교류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지난 7월에 시작해 이달 29일까지 여는 이번 행사에는 인도, 터키, 일본이 참여해 각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먼저 인도전에서는 인도 시인 타고르의 서정시집 '기탄잘리'에서 영감을 얻은 회화작품을 비롯해 인도의 문화예술을 소개했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 터키전에 이어, 이달에는 일본의 전통완구 120여 점을 한 데 모아 선보인다. 어른도 아이들도 좋아할 이번 전시에는 직접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놀이에도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올 가을 제물포구락부에서, 곳곳에 깊이 배인 역사와 세월의 흔적을 좇아보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사교모임을 위해 태어나, 인천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제물포구락부의 오를을 확인하자.

위치 : 중구 자유공원 남로 25
관람 시간 : 9:30~17:30(점심시간 12:00~13:00) 월요일은 휴관
문의 : 765-0261, www.jemulpoclub.com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기다리며, **아시아문화관**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 예술회관역 지하 1층에 있는 ‘아시아 문화관’에 가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동북아시아부터 저 멀리 서아시아의 문화까지 품에 안을 수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우리로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문화관은 전통공예품과 생활용품 등 아시아 관련 물품 500여 점을 전시해 눈길을 끈다. 먼저 기획전시관에서는 각 아시아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테마의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연다. 이달 19일까지는 아시아 9개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문자전’을 선보인다. 바로 옆 상설전시관에는 어릴 적부터 꿈꿔 오던 아라비안 판타지가 펼쳐진다. 모래와 바람으로 규칙을 빚어 사막 위에 꽃피운 ‘장미석’,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을 떠올리게 하는 S자 모양의 칼 ‘칸자르’ 등이 흥미롭다. 이와 함께 이슬람 경전 코란과 이슬람 문학 관련 자료 등 우리나라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서아시아 관련 자료들이 인상적이다. 이국적인 풍경을 뒤로하고 기념촬영을 해도 좋다. 바닥에 깔린 모래사장과 그 위에 선 낙타의 모습을 보노라면, 금방이라도 아라비안 전사들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올 듯하다. 문화관은 특히 단순히 전시물을 보는 것을 넘어 만지고 느끼며 아시아문화를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 방문하면 다른 아시아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사막의 열매인 대추야자도 맛볼 수 있다. 또 전화로 단체예약하고 방문하면 연령에 따라 아라베스크 목걸이 만들기, 이슬람 문양 퍼즐 맞추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마르하반(안녕하세요)’! 간단한 아랍어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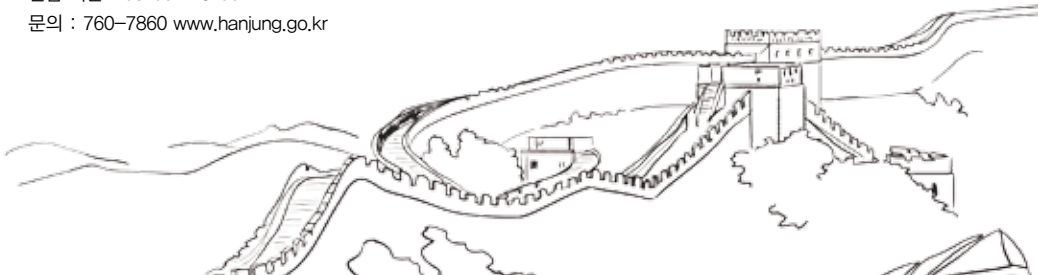
위치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 1층(1번 출구 방향)
관람 시간 : 10:00~19: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
문의 : 433-3344 www.iirf.or.kr, www.facebook.com/AsianCulture.icice



지하철 타고 중국여행, **한중문화관**

중구 북성동 일대. 인천역 맞은 편, 중국식 전통 대문 패루를 지나면 여기부터는 새로운 세상이다. 차이나타운에는 13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에 뿌리 내려 온 중국인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쉰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중국풍 건물과 화교학교 등 중국 고유의 문화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중문화관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아우르며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여의주를 물고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한 황금빛 용, 중국의 전통문양이 새겨진 외벽과 붉게 솟은 기둥. 외관에서부터 중국색이 강하게 전해진다. 문화관은 다양한 중국 관련 전시와 공연 활동으로 두 나라의 사이를 좁히고 있다. 기획전시실에선 회화, 조각, 서예 등 주로 중국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한중문화전시관과 우호도시 홍보관에선 중국의 우호도시로부터 기부 받은 문화재를 포함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한중 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의미있다. 또 공연장에선 중국의 경극, 기예, 민속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열어 즐거움을 더 한다. 이곳에 가면 중국을 몸소 배우고 느낄 수 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중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개항장문화, 중국어문화, 어린이문화 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위치 : 중구 제물량로 238
관람 시간 : 09:00~18:00
문의 : 760-7860 www.hanjung.go.kr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추억의 공간' 동네서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가게가 아니다. 동네의 이정표였고, 사랑방이었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만남과 약속의 장소였다. 잠시 서서 책을 구경하며 딱히 살 책이 없이 가도 시간 때우기 좋은 곳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낭만의 장소였고 배고픈 영혼을 달래 주었다. 그런 서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인천이 '2015년 책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우리 동네 서점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인천의 문화와 추억을 품은 서점을 찾아가 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양진수 자유사진가



대한서림 예전 모습



대한서림

세월따라 대한서림도 변했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대한서림이 망했다' 등. 최근 대한서림의 변화에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들이 서점을 지켜주지 못해 저리 변한 것 같아서였다. 친구와의 약속장소였고, 책을 사보던 대한서림에 빵집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적잖은 충격이었다. 작년 8월 대한서림은 1,2층을 빵집으로 자리를 바꿨다. 지금은 대한서림의 간판보다 빵집의 상호가 더 눈에 띈다.

동인천역 건너편에 있는 대한서림은 1953년 오픈했다.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와 불황이 겹치면서 점점 책 읽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대한서림의 건재는 추억을 음미할 공간이 존재한다는 데 안도감을 준다.

대한서림은 60여 년간 인천 서점의 만형 노릇을 해왔다. 김순배(70) 회장이 대한서림을

운영한 것은 1978년부터다. 한창 중동바람이 불 때 잘나가는 엔지니어로 각광을 받았던 김 회장이 장인이 운영했던 서점을 이어받으면서다. 그는 공학도답게 업계 최초로 전산화를 시작했고, 서점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착용하게 했다. 당시 서점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전문화, 대형화를 예견했고, 대한서림을 국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서점으로 키워냈다.

지금 대한서림이 있는 건물은 70년대 젊은이들의 집합장소였다. 별다방, 별제과, 별음악감상실 등 당시 젊은이들이 즐겼던 문화가 이 건물에 다 모여 있었다. 김 회장은 1989년 이 건물을 사들이고 대한서림을 이전했다.

대한서림은 90년대 말까지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서점이었다. 대한서림은 인터넷시대를 예견 10년간 온라인서점 '짬뽕로 닷 컴'을 운영하기도 했다.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려 했으나 온라인 서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영업을 접었다.

대한서림은 2005년 이후 인터넷과 온라인 서점의 성장, 동인천의 쇠락으로 명성이 예전같지는 않다.

시대가 변한만큼 서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서점의 변신은 김 회장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책만 보는 공간

이 아닌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면서 책도 사는 공간으로 변해야 서점에 미래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회장은 책읽는 시민들이 늘어나기 위해선 가정마다 ‘우리 집 주말은 서점가는 날’을 정해 부모와 아이들이 손잡고 서점을 찾는 습관을 갖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이 서점을 찾고, 책을 읽으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아날로그 서점도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회장은 대한서림이 운영하는 빵집에 빵을 먹으로 왔다가 아이와 엄마가 책을 사고 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 없다.

문의 : 761-7337

시민문고

주안 옛 시민회관 건너편에 자리한 시민문고는 79년 문을 열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녔던 안수복(62) 사장은 책을 좋아해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서점을 냈다. 장사꾼이 아닌 문화사업자가 되고 싶었다.

10평의 작은 서점은 처음 2~3년간은 너무 어려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다. 안 사장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 서점을 냈는데 배고프다고 일을 점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심기일전했고, 결국 서점을 일으켜 세웠다.

몇 년 고전하던 서점은 84년부터 93년까지는 매출이 좋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운영이 괜찮았다. 한참 잘될 때는 직원이 7명이나 됐다. 예전에는 소설, 참고서 등 모든 책을 포장했기에 7명의 직원과 안수복 사장, 부인까지 동원돼 책을 포장할 정도로 항상



손이 모자랐다. 다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린다.

시민문고는 33년간 한국에서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 단골손님이 많다. 안 사장은 단골 손님들의 책 취향을 이미 꿰고 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알려 주고, 책은 보고 싶은데 뭘 볼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책을 추천하는 북 마스터 역할까지 한다.

중·고등학교때 책을 사갔던 학생들이 지금은 부모가 되어 자식하고 책을 사러 다시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손님들을 볼 때면 서점을 연 것에 보람을 느낀다.

안 사장은 인천시가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됐는데 서점이 없는 책의 수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10년 전만해도 주안, 동인천, 석바위, 신기시장 주변으로 서점이 20군데가 있었지만 시민문고와 대한서림만 살아남았다. 지금은 서점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프랑스 같은 문화국가도 오래된 서점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인천도 서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소망을 밝혔다.

문의 : 864-5577

부평문고

부평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은 부평문고다. 91년 문을 열어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다. 동네에 서점이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전문서적이거나 수험서적을 사려면 동인천이나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야말로 문화 취약지대였다. 부평 토박이인 부평문고 장덕훈(64) 사장은 부평을 미군 기지촌, 외지사람들이 그저 거쳐가는 곳으로 만 여기는 게 부끄러웠다. 부평에도 문화의 자긍심, 뿌리를 세우고 싶었다. 부평문고가 생기고 나서 어떤 시민들은 부평에 대형문





고가 생겨서 좋다며 박카스와 초콜릿을 사울 정도로 환영했다. 부평문고는 손님들이 자신의 원하는 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서가가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또 시민들이 마음 편히 책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부평문고도 손님의 70% 이상은 단골이다. 20년 전 다녔던 책 손님들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부평문고가 한창 잘 될 때는 1천500개의 출판사와 거래했고, 직원도 24명이나 됐다. 장 사장은 지역서점이 살기 위해선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해 오프라인 서점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되도록 전국체인의 대형서점보다 동네서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역서점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인다.

또 도서관들이 책을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별, 지역별로 도서관을 많이 짓고, 시에서 도서예산을 많이 책정해 서점과 책이 함께해야 진정한 책의 수도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529-0077

만화전문 새인천문고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코난, 드레곤볼 등 유명 만화시리즈부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대를 사랑합니다’, ‘순정만화’, ‘미생’ 등의 인기 웹툰이 가득차 있다. 구월동의 새인천문고는 인천의 유일한 만화전문서점이다. 이곳에선 유명 만화 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웹툰, 판타지·무협 소설, 여행서적을 총망라한다. 새인천문고는 인천의 만화서적 총판으로 도매와 소매를 겸하고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만화 마니아들이다. 인천의 각 서점에 깔리는 만화들은 이곳을 통해 유통된다. 만화대여점, 만화방, 만화카페로 들어가는 책들도 마찬가지다.

황경아 사장은 “만화전문 서적은 일반서점과 달리 만화 마니아층이 두텁고 수요가 일정해서 경기를 덜 탄다”고 말한다.

새인천문고는 98년에 문을 열었고, 황 사장이 서점을 인수한 것은 4~5년 전이다. 석바위에서 구월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매장 규모도 확대하고 판매서적의 종류도 늘렸다. 서점은 1층 초등학습지와 문학서적, 베스트셀러, 웹툰, 2층은 만화코너, 로맨스·판타지소설, 3층은 중고생 학습지 코너로 이뤄졌다. 베스트셀러, 참고서 가격이 시중보다 싼 편이어서 단골 고객들이 많다.

황 사장은 “인기 유명만화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꼴로 신간이 나오는데 이때 맞춰 마니아들이 서점을 즐겨찾는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도 만화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만화야 말로 문학작품의 수준을 능가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책”이라며 만화에 대한 찬사가 끝이 없다.

문의 : 427-6070

인천복음서점

인천복음서점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전문서점이다. 1957년 배다리에서 10평 정도의 규모로 문을 열어 동인천 대한서림 앞, 내동, 용동을 거쳐 1975년부터 현재 답동성당이 있는 경동사거리 에 자리를 잡았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오래됐다.

1957년에 유서깊은 기독교 전문서점을 연 이는 임형섭(82) 어르신이다. 임 어르신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한국전쟁 당시 주한 영국군부대 사무원으로 일했고, 영국군 부대가 한국을 떠나면서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기독교 전문서점을 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당시 미군부대 사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추천도 받았지만 서점을 운영하는게 더 마음이 끌렸다. 서점은 시작부터가 고생과 어려움의 시작이었다. 기독교 전문서점이라는 문패를 내걸고 성경책, 찬송가, 성서관련 책을 갖췄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가게 세를 못내 부인의 결혼반지를 팔아 보태기도 했다. 5,60년대 다들 어려웠던 시기라 종교서적을 팔기가 힘들었다. 책이 안 팔려 해진 성경책 가죽 케이스를 수리해 주거나 성경책을 다시 제본해주는 일까지 도맡았다.

서점은 어려워 경영난이 왔지만 신앙심은 깊어졌고 사명감도 생겼다. 임 어르신은 서점을 운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임무였던 것 같다고 회고한다. 임 어르신은 영국군부대 시절부터 갖고 닦아 온 영어실력으로 ‘성경의 역사(All about bible)’라는 영문서적을 한국말로 번역해 출간했다. 이 책은 ‘성경통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다.

인천복음서점은 아직 아날로그적 운영방식을 고집한다. 수만 권의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서가에 꽂혀있고, 성물 등의 악세서리 상품을 판매한다. 60여 년 가까운 전통과 역사 때문에 시중에선 잘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귀한 성서들이 있어, 아는 손님들은 일부러 구매하러 찾아온다. 복음서점도 세월과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인터넷과 기독교서점들이 여러군데 생기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데다 이곳이 원도심이다보니 더 손님이 없다.

임 어르신의 소망은 자신의 손으로 일궈 온 서점이 어렵지만 계속 유지되어 크리스천들의 정보와 교류의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문의 : 772-7696



인천 책 향기,

세계에 퍼진다

책 읽는 시민에게 미래가 있고, 책 읽는 도시에 희망과 비전이 있다. 우리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됐다. 이로써 인천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교육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 책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문화와 사람 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

유네스코는 지난 7월 19일 우리시를 '2015년 세계 책의 수도(World Book Capital)'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우리시가 2015 세계 책의 수도 주제로 '책으로 하나 되는 세상(Books for All)'을 주창하고 시민의 독서 장려 운동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시는 책의 수도로 지정되기 위해 우리나라 활자, 인쇄기술, 한글의 우수성을 유네스코에 부각시켰다. 역사적으로 발전한 활자, 인쇄기술력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글과 직지심경 등을 내세워 세계 기록 문화의 기원임을 강조했다.

책의 수도로 지정되면 그해 4월 23일부터 1년간 저작권, 출판, 문학작품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독서문화 행사의 중심도시가 된다. 우리시는 책의 수도 지정을 축하하고자 오는 10월 중 '2013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민 500명을 선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평생학습축제, 북 콘서트, 시 낭송회, 북마켓 행사를 연다.

배다리 고서점 살리기 운동, 원도심 사업과 연계

원도심 주민들과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을 함께 축하하고자 '원도심과 연계하는 책의 수도사업'도 전개한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원도심지역 학교에서 북 콘서트 진행, 배다리 서점골목을 활성화하는 배다리 고서점 살리기 운동, 연수 어린이·청소년 북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국제행사로는 국제아동교육도서관, 국제독서단체포럼, 유네스코 세계책의수도 교류행사, 인천디지털북페어,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 사무국 설치 등이다.

책 나누기 행사도 진행한다. 도서관과 책 추천 릴레이, 서해 5도를 비롯한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북 콘서트를 매월 열고, 초중고에 독서커뮤니티 및 토론회를 장려하며, 독서토론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청소년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한다. '책 읽어주는 목소리 기부' 활동으로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 낭독파일을 지원하고, 어린이멘토링, 해설과 함께하는 뮤지컬 공연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2015년 세계 책의 수도가 시작되는 해에는 세계 책의 수도 선포식을 갖고, 외국손님들을 대상으로 경인아라뱃길과 작은 섬들을 유람하는 '리딩 보트(Reading boat)'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인천알라문학포럼', 한글, 직지심경 등 우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위대한 유산 심포지엄' 등의 중요행사가 풍성히 열린다. 이외에도 아시아 및 북한 어린이에게 책보내기, 도서관증과 책 추천 릴레이,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가 준비된다.

한편 유네스코는 2010년부터 매년 책의 수도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은 방콕(태국), 2014년은 포트하코트(나이지리아)가 선정됐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은 어떻게 하나

'세계 책의 수도'는 문화, 출판 관련 세계 4개 기관이 선정한다. 유네스코(UNESCO)와 국제출판협회(IPA), 국제도서관연맹(IPLA), 국제서점연맹(IBF) 등 국제기구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세계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이들 4곳은 세계 책의 수도로서 프로그램의 구체성과 활동성, 독서진흥 및 장려운동의 가치성과 프로젝트의 수, 질적 능력 등을 평가해 인천시를 최적의 도시로 뽑았다.



이광수, 최남선, 김소월과

만나는 ‘문학여행’

1890년 개항 이후부터 분단 전인 1940년대까지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한눈에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문학관이 인천에 문을 연다. 인천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이광수, 최남선, 김소월, 한용운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이끈 중요작가들의 작품을 시대별로 정리해 전시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인천한국근대문학관(관장 이현식)은 중구 해안동에 자리한 일제때 지어진 창고건물 4개동(연면적 485평)을 리모델링해 이달 27일에 문을 연다.

인천한국근대문학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2007년부터 근대문학 자료를 수집해 현재까지 2만9천 점을 모은 상태다. 상설전시실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은 근대계몽기부터 1948년까지의 시, 소설 단행본 등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2층은 인천문학, 인천문인 등 인천근대 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방학 근대문학 독서토론반, 국어교사를 위한 한국 근대문학관련 집중강좌, 인천시민을 위한 세계문학 등 교양강좌, 작가초청 북 콘서트 및 시 낭송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집된 작품 중 눈길가는 전시물로는 유길준(1856~1914)이 1895년 4월 발간한 한국 최초의 국한문 혼용서인 서양기행문 ‘서유견문’ 초판과 육당 최남선(1890~1957)이 발행한 순우리말 아동잡지 ‘아이들 보이’ 창간호 등은 희귀본이다.

또 미당 서정주(1915~2000)의 첫 번째 시집으로 관능미와 생명의 강렬함이 돋보이는 ‘화사집’ 보급판도 수집했다. 이 보급판에는 미당의 친필 현시를 수록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안국선의 ‘금수회 의록’(1908), 염상섭의 ‘만세전’(1924) 등과 같은 작품의 초판도 보관하고 있다.

인천은 근대개항도시로 근대문화를 처음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도시다. 전 세계에 한류바람의 밑바탕에는 우리문학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인천에서 국내 서양문학의 도입과 발전과정을 총괄적으로 보여 주는 문학관의 개관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런 문물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왔기에 인천항과 가까운 이곳에 문학관이 들어서는 상징성도 크다. 인천한국근대문학관은 우리 근대문학을 통시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문학관이다. 문학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문학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다.



염상섭



이육사



박태원

인천한국근대문학관 개관 행사

인천한국근대문학관이 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기획전은 연평도 출신의 고 기형도 시인의 시 ‘입속의 검은 잎’을 미술과 문학의 만남으로 소개하는 전시로, 이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다. 또 다른 기획전인 황순우 사진전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연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교실인 토요문화학교 결과보고 전시회인 ‘고교생이 그리는 한국근대소설’전은 오는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시한다. 낭독공연으로는 조혁신 작가의 ‘뒤집기 한판’을 연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연극배우들이 작품의 느낌과 감성을 살려 라디오드라마처럼 낭독한다. 10월 12일과 19일 각각 오후 2시에 열린다. 시민을 위한 세계문학특강은 10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민을 찾아가는다. 토요문화학교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한국근대소설은 ‘메밀 꽃 필 무렵’과 ‘봄봄’을 상영하며, 이달 28일과 11월 30일 각각 오후 2시다. 문의 : 455-7162



육사시집(이육사)

소설가구보씨의일일(박태원)



인천한국근대문학관 조감도



QR코드를 찍으면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화수부두에서 목선 만드는

‘노아 부부’

어부에게 포구는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넓은 바다는 어부와 함께
생을 다한 어선들의 무덤이자 새로운 배를 만드는 어머니의 자궁이
다. 어부의 재산목록 1호인 어선이 휴식을 취하는 곳, 화수부두 한
구석에서 지금 또 한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
가 아니다. 어부가 자신의 목선(木船) 만들고 있다. 그 어부의 구릿
빛 피부에는 지난 여름 구슬땀이 마를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글 · 사진 김민영 자유기고가



9.16톤짜리 셀프 배

화수부두는 어부와 어선들의 오랜 휴식처다. 기나 긴 항해를 마친 어선들이 한적한 풍광이 돼 한 컷 사진 속에 담기며 추억을 곱씹게 하는 화수부두. 이 부두 한 편에서 매일 흰색 ‘난닝 구’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어부가 그물과 어망 대신 망치와 톱을 들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눈빛만이 반짝인다.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한 물가 바로 옆 거대한 장막이 그의 비밀공간이다. 흰 장막으로 사방을 두르고 조그만 창문을 내 숨통을 뚫다. 밖은 대명천지이건만 안은 흐릿하다. 어둠 속에서 푹푹푹~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온다. 창문과 장막 틈새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줄기가 전부다. 그 안에는 거대한 나무 배 한 척이 통째로 들어차 있다. 아직은 배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형태다. 부지런히 빈틈을 채우고 있는 유동진(68)씨의 망치질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는 혼자서 나무 배를 만들고 있다. 벌써 3년째다. 일종의 DIY(Do-it-yourself)다.

공간 안에 그의 옷가지와 줄자가 걸려 있고 주방기구들이 나무먼지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배 위 이곳저곳에 그의 손과 호흡을 맞추는 연장들이 휴식을 취하듯 누워있다. 크고 작은 물건들 모두가 3년간 그와 함께한 분신들이다.

답답한 내부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한증

막 속이다. 열기가 쉬이 빠져 나가지 못하니 그는 연신 구슬땀을 흘린다. 아무리 더워도 미목선에 비를 맞히지 않기 위해 더위를 감수한다. 따갑게 나무 먼지가 살을 파고들어도 더 이상의 환풍을 용납하지 않는다. 허술해 보이는 계단을 이용해 목선을 오르내리며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주저 없이 실행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완성된 목선의 모습이 선명하다.

“내 배를 만들고 있어요. 9.16톤짜리 목선이 될 거예요.”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가 연필을 들었다. 종이는 따로 없다. 옆에 구겨져 있는 낱자 지난 신문을 두 손으로 째악~ 찢는다. 그리고 그 위로 그림을 그린다. 그의 배를 설명한다. 볼펜을 쥔 손은 굳은살로 두텁다. 9.16톤의 목선이 굳은 살 박힌 그의 손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생전 처음 혼자 만들고 있는 목선이다.

그는 3년 전부터 나무를 사서 말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 밑바닥부터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설계도도 없다. 그냥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가며 만들고 있다. 어느덧 배는 형체를 갖추게 됐다. 지금 만들고 있는 목선은 그에게는 다섯 번째 소유의 배가 된다.

네 척의 배 그리고 마지막 배

그는 어부다. 19살부터 어부로 살았다. 어부로 살면서 배 만드는 곳에서 틈틈이 심부름을 하면서 배 만드는 기술을 눈으로 익혔다. 그 기술이 지금 그의 배를 완성시키고 있다. 그와 인연을 맺은 네 척의 배와 어쩌면 마지막 인연이 될 또 한 척의 배.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이다.

“마지막 배는 작년 8월에 폐선됐어요. 물이 차올라 죽을 뻔 했죠. 그래서 정든 배를 폐선처리하고 배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요. 휴~ 고생을 사서하네요.”



그의 아내 강영자(61)씨의 한숨이 바다만큼 깊다. 남편이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를 했다. 그냥 기술자에게 맡기길 원했다. 그러나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오늘도 아내는 아침부터 남편의 일들 돕다가 의견 충돌을 겪었다. 덩고 힘드니 작은 어긋남에도 감정이 크게 상한다.

잘 다듬어진 긴 목침을 도르래를 이용해 배 위로 올린다. 아래에서 아들이 올리면 그는 위에서 잡아 올린다. 잠시 후 아들과 함께 올라 간 배 위에서 어어~ 하는 소리와 함께 쿵~ 소리가 난다. 또 뭇가에 부딪힌 게다. 아래에 있는 아내의 걱정은 다시 한숨으로 뱉어진다. 이들의 작업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최대 승선인원은 유씨 부부 두 명

목선은 15년~18년이면 수명을 다한다. 이전 네 척의 배들도 그랬다. 그런데 그는 목선을 만든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래도 그는 배를 만든다. 마치 주위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성경 속의 노아와 같다.

“10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나무와 부품을 사

서 오래가도 썩지 않는 튼튼한 배를 만들고 있죠. 왜? 아들과 손자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이 배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요. 대를 이어 갈 수 있는 배를 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어. 내가 만들면 절약도 되고 그만큼 튼튼하게. 무엇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의 고집은 배 한 척을 만들지만 수고와 정성은 배 세 척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담겨 있다.

그는 눈이 와도 비가와도 이곳에서 혼자 묵묵히 작업을 했다. 새벽 2시도 새벽 5시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그의 몸은 크고 작은 상처를 훈장처럼 달았다. 손톱은 망치로 맞아 까맣게 됐고 구멍을 뚫는 드릴은 바지



감에 감겨 그의 다리를 휘감았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 안쓰럽다. 그러나 그저 옆에서 돕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이 번갈아 오셔서 도와주시고 아들이 틈나는 대로 와서 일을 돕지요.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유동진씨가 배 이곳저곳을 가르킨다. 고기를 잡으면 얼려서 보관하는 얼음 창고와 살려서 보관하는 곳, 어부의 휴식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갑판 아래 숨겨져 있다. 최대 승선 인원은 5~6인용이다. 그러나 이 배는 부부만 타게 될 것이다.

“나는 선주 겸 선장이지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좋아. 고기를 잡아도 남 안 잡는 것을 잡아. 난 특별한 것이 좋아요.”

조금만 더 작업을 진행하면 이제 방수처리를 하고 기계와 엔진, 스크루가 목선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우게 된다. 이 목선이 완성되면 ‘선광호’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의 배들은 모두 ‘선광호’였다. 다섯번 째 선광호로 완성되는 날 진수식을 갖게 된다. 아마도 진수식은 9월 말쯤 일 것이다. 부부가 탄 선광호가 화수부두를 벗어나 큰 바다로 나가는 행복한 모습이 그려진다.



화수부두 수산물직매장

지난 5월 화수부두 수산물직매장이 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화수부두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부둣가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화수부두에 정박하는 어선의 선주 32명이 직접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들을 판다. 철저하게 100% 자연산만 판매하고 있어 식도락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선주들이 직접 판매하여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이곳은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로 더욱 분주하다. ‘선광호’라는 간판을 걸고 부인 강영자씨가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성미씨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누구나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달이 길 밝히고 별이 뜨면, 가장 반짝이는 별을 따라 오면 되요. 그 찾던 곳. 작은자야학이랍니다.’ 가장 반짝이는 별을 따라 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를 만났다.

최성미(40)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공부하는 ‘작은자야간학교’의 선생님이다.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머니, 아버지뻘의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 어디 쉬울까. 더구나 그녀는 몸이 자유롭지 않은 이른바 ‘장애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그녀를 의심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니..., 제대로 가르칠 수는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열정에 마음을 열고 결국 그를 믿고 따랐다. “야학에서 다시 배움의 길을 걷기까지 세월이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왔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다. 지금껏 한번도 팔다리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었다.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힘든 건 누구보다 이해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의 외면이었다. 장애를 치부로 여긴 가족은 성미씨를 헛살 한 줄기 닿지 않는 어둠 속에 꼭꼭 가둬놓았다. 학교를 다닐 수도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다. 숨조차 쉬기 힘들던 긴긴 시간이 지나고, 스물여덟 살이 돼서야 그녀는 비로소 ‘최성미’로 태어났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입고 있던 옷만 가지고 도망치듯 나와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0만원 짜리 집에 시작했지만, 행복했다.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꿈꾸었다. 공부도 시작했다. 지금은 야학의 교단 위에 서 있지만 시작은 낮은 책상에서였다. 야학에서 초·중·고등 교과과정을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영문학 과를 마쳤다. 직장생활도 시작했다. 그때까지 만해도 그녀가 꿈꿔오던,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는 줄로만 알았다.

“세상을 몰랐던 거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남들에게는 그저 문턱 하나지만 그 문턱 때문에 멀리 돌아가거나 아예 들어서지 못했다. 도서관에는 장애인지정석이 없고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이고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필요한 걸 얻기 위해 일일이 쫓아다니며 싸워야 했다. 직장에 다녀도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급여를 받으면 정부보조금이 끊기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했다. 적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돈 벌기를 포기했다.

“꿈이요? 글썄요. 이젠 1년, 2년 바로 앞만 보고 살아요.” 꿈을 향해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달려 온 성미씨를 나약하게 한 건, 장애가 아니라 세상이다. 하지만 늘 싸워야 하고 때론 한계에 부딪치는 삶일지라도 그녀를 꺾을 순 없을 것이다. 성미씨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세상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잘 아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니까.

※ 작은자야간학교 후원계좌 : 농협 149-01-212141(작은자야간학교)

민어, 여름 보양식으로

입맛 돋우다

낙후(落後) 소리를 듣던 중구 신포동 시장이 요즘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민어 때문인데, 민어를 찾아 시장 골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주말 같은 때는 성시(成市)라 해도 좋을 정도다. 젊은 층들은 닭강정이나 어묵꼬치니 거기다가 공갈빵이라고 불리는 허풍선이를 먹으러 오지만 좀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단연 민어를 찾는다. 더구나 요즘, 삼복 제철을 만나 보양을 위해, 호사를 위해 시장 골목 안이 인파로 복새를 이룬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호식가들의 특별한 음식 민어, 60년대로 막 내려

“민어는 여름 복중이 제철이라, 이때쯤이면 기름진 소담한 살이 한창 맛을 돋우어 준다. 요즘에는 철 따위는 아랑곳없이 잡고 있어 제맛이 아닌 민어가 많고, 일본인이 먹지 않던 민어를 이제는 어디에 가나 일본식으로 조리를 하니 그나마 민어 맛이 날 리가 없다. 제철의 민어는 전통 요리법에만 따르면 무엇을 만들든 그 맛이 일품이다. 생회와 어포도 좋고 굽거나 끓이거나 졸여도 그만이고, 심지어 판 생선 같으면 버리는 대가리, 등뼈, 내장을 끓인 서덜이탕도 인천의 명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여름철에는 배낚시의 풍류와 사리 터를 찾는 소풍으로 싱싱한 민어를 포식했는데 그것도 60년대로 막을 내렸다.”

고 신태범(愼兌範) 박사의 저서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 실린 내용으로 신 박사의 예민한 미각과 풍부한 음식 경험을 읽을 수 있다. 아무튼 근래에 들어 민어를 찾는 호식가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 박사의 지적대로 “철 따위는 아랑곳없이 잡는” 민어의 맛을 구별하기는 하는지….

또 한 가지, 여름철에는 배낚시 풍류와 더불어 사리 터를 찾는 옛 인천의 민어 이야기 끝에 “그것도 60년대로 막을 내렸다.”는 것은 어장으로서 우리 인천의 뼈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요즘은 온 국민이 전라남도 진도나 완도, 신안 등지만이 민어의 산지인 듯 알고 있지만, 과거 1920년대 이래 우리 인천 근해 덕적도, 굴업도는 인천 민어 요리로써 서울 호사가들까지 불러내릴 정도로 대단한 어장이었다. 그것이 조기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해양 오염, 기후 변화와 남획에 의한 어족 고갈로 6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는 말이다.

학교를 오가며 풍성한 시장 풍경을 보는 것이 좋아서 중·고·대학 꼬박 10년 동안 신포시장을 들락거렸다. 신 박사의 지적대로 아직은 민어가 풍성했던 1960년대였다. 시장에는 웬만한 어린이가 몸통이보다도 큰 민어를 좌판에 누어 놓고 팔던 어물전이 여럿 있어서 오가며 그 큰 바닷고기를 구경하곤 했다. 저게 어떻게 해염칠까? 어떻게 잡혔을까? 이제는 그런 가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연안부두 공설시장에나 가야 볼 수 있을 터이지만 민어 몸집은 예전에 비해 형편없이 작을 것이다.



그 후로는 신포시장에서 생선 민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워낙 인천 최초, 최고의 생선전(生鮮廛)으로 명성을 얻었던 곳이어서 그랬는지 민어를 다루는 집이 골목 안에 몇 군데 자리를 잡고 회와 서덜이탕을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야 공무원이나 큰 회사 사람들 위주로 고객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민어(民魚)’라는 이름 그대로 온 서민, 백성이 다 기호(嗜好)해서 모여든다. 그래서 민어인지, 그 연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백성 민(民)자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정약전의 <자산어보(茲山魚譜)>에는 참조기 면(鰻) 자, 곧 면어(鰻魚)로 이름을 쓰고 있다. ‘민어(民魚)’는 다만 그 속명이라는 설명이다.



쪽에는 시장 안에서 민어회 원조 노릇을 하는 K횃집이 있다. 신포 횃집은 바로 동쪽 H횃집을 비스듬히 건너다보는 위치에 있다. 신포횃집이 문을 연 지는 이제 겨우 10년 남짓하다. 전에는 시장을 오가며 어찌다 농어를 주문해 가져가거나, 소반에 얹힌 말린 어란(魚卵) 따위를 사들곤 하던 생선 가게였다. 그러던 곳이 10년 전 시장을 정비할 때, 횃집으로 변모한 것이다. 2002년 후배 한(韓) 모 군이 지방선거에 나와 일심으로 도왔는데 참으로 아쉽게 패배하고 만 뒤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 처음 들어서지 않았나 싶다.

아무튼 대부분의 횃집은 다 남자가 주방을 책임지는데 반해 이 집은 주인 윤인자(尹仁子)씨가 회칼을 잡는다. 흰 위생복도 입지 않고 머리에 요리모도 쓰지 않지만 떨어내는 회의 맛은 남성 숙수(熟手)가 내는 것 이상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윤인자씨가 횃집을 경영한 것은 10년이지만, 생선을 다루기는 39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험자도 윤인자씨를 따르지 못한다. 시장 안에서는 최근 자기 가게를 세 주고 잠시 물러난 H횃집 주인이 조금 앞서는데 그가 잠시나마 떠난 마당에는 이제 신포시장 안에서 일인자인 셈이다.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주인에게 신뢰가 더 갈 것이다. 생선의 모양만 살펴도 그 물이 좋고 나쁨을 대변에 헤아리고, 육질을 판별해 내고, 처치의 방법을 훤히 꿰어 터득하고 있을 터이니….

경기도 군자 출신 윤인자씨가 불과 28세 무렵에 인천 신포시장에서 생선전을 열게 된 동기는 흔한 말로 먹고살기 위해서였다. 이런



생선 경력 39년 솜씨, 신포시장 일인자

민어에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으나 너무 겹가지로 나가는 것 같아 이쯤에서 본론인 신포횃집 이야기로 들어가자. 신포횃집은 중구 신포시장 안 두 골목 중간 지점에 있다. 신포시장의 구조는 동서로 뻗은 이 두 개의 나란한 긴 골목으로 되어 있다. 패션거리 다음의 닭강정, 어묵꼬치 따위로 번잡해진 시장 안 골목이 윗골목, 그리고 인파가 비교적 뜸한, 수입품코너, 인삼가게 등이 몰려 있는 골목이 아래골목이다.

이 두 골목 중간은 6·25 동란 후 마구 들어선 집들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는데 10년 전, 중구청에서 정비를 해 털어내고 동서 양쪽에 두 개의 십터 같은 공지를 만들어 놓았다. 동쪽에는 요즘 비정상하게 이름이 뜬 H횃집이 있고, 서

여인에게에는 예외 없이, 그렇듯 쓸데없이 통 큰, 그러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는, 그리고 끝내 술과 미숙한 일상생활로 삶을 곁돌다 일찍 떠나고 마는 남편이 있게 마련이다.

윤인자씨는 25세에 경기도 용인 수지로 시집을 갔다. 그리고 3년 후인 1974년, 그런 남편과 이 세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 신포동 시장 골목 한 여인숙 방에 세를 듣게 되는 것이다. 시댁에서 어느 저수지와 관련한 토지를 매각하여 당시 돈 150만 원을 분배받았는데 남편의 사업 빚 100만원을 변제한 후 수중에 남은 50만원 중 45만원으로 여인숙 방 하나를 전세 낸 것이다. 바로 지금 횃집 건너편이다.

그리고 남은 돈 5만으로 부부는 생선 가게 경영에 나선다. 남편은 자전거를 샀다. 담배도 혈한 것으로 바꾸며 7년 동안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윤인자씨가 35세가 되는 해, 나이 마흔한 살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 동안 아들 둘과 먹고 산 것, 그것만 해도 고맙고, 더 이상 뭐…” 그녀에게 일찍 여인 남편에 대한 애상이 왜 없고, 말 못할 한과 고뇌와 상처가 왜 없었으랴. 그것은 쉽게 물을 일도 아니고 어쭙잡게 받아 적을 일도 아니다.

밀반찬 어란과 민어·농어 건작찜 맛 일품

변듯한 횃집 다 놔두고 왜 작고 웅색한 이 집을 글로 쓰고 있는가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어회는 어느 횃집이건 거의 동일하다. 배반이라고 부르는 어복 부분, 진한 살 부분, 씹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 슬쩍 데쳐 말아놓은 겹질과 버터덩이 같이 생긴 부레 등등. 심지어 접시에 놓이는 모습도 대동소이하고 밀반찬도 비슷하다. 거기에 서덜이탕까지도 같다.

그러나 이 집에는 시장 내 어느 집에서도 볼 수 없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택한 것이다. 이 집에는 밀반찬이 순서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것이 나온다. 먼저 여러 밀반찬과 함께 얇게 썬 어란이 몇 쪽 나온다. 그리고 회를 다 먹고 식사를 할 무렵, 민어나 농어 건작(乾作) 찜이 상에 올라온다.

어란은 민어 알을, 기름을 발라 햇빛에 건조시킨 것으로 좀 짜기는 해도 씹히는 맛이 쫄깃하다. 양주 안주로도 좋을 것이다. 찜은 꾸덕꾸덕 마른 민어, 농어 살을 마늘, 파, 잘게 썬 붉은고추 등으로



양념을 한 뒤 싱겁지 않게 간을 보아 증기로 하얗게 쪄 내는 것인데 옛날 어른들처럼 물만 밥에 먹는 맛은 그야말로 최고다.

다른 반찬 품목은 몰라도 경인간 일대 민어 횃집에서 이 두 가지를 내놓는 집은 여기 신포 횃집뿐이다. 장마철이나 요즘 같은 불볕에는 살이 물크러지고 탄력이 없어져 말리지 못한다고 한다. 어란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아쉽지만 이 같은 신포횃집의 특징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삼복이 다 나가고 민어철도 피크가 지났지만 그래도 과거 인천의 민어 절기는 추석 무렵까지 이어졌었다. 거기에 별이 기울면 어란과 건작이 나올 터이니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도 이 글을 쓴다.

문의 : 765-3088

커피 한 잔 마시고

복권 당첨 됐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1

인천시복권부유홍음식세영수증발행에관한조례(제419호)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목적은 ‘복권부 유홍음식세 액수증을 발행 함으로써 유홍음식세 영수증의 교부를 철저히 이행케 하여 유홍음 식세의 공정하고도 확실한 징수를 도모한다’였다. 한마디로 유홍음 식점의 탈세를 막아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뜻이었다.

복권의 종류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비교적 고급 음식점인 1종 유홍 음식점에서 발행하는 500원 짜리 복권(영수증)으로 3등까지 공개 추첨한다. 음식값 500원마다 음식점 주인은 1매씩 발행했다. 5천원 짜리 회식을 했다면 손님은 복권 10장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다방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복권(영수증) 수령자가 즉석 에서 개봉해 당첨 여부가 결정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즉석식 복권 이었다. 다방 주인은 그 자리에서 해당 복금(당첨금)을 지불해야 한 다. 유료 음료물(커피 등) 한 잔에 복권 1매를 손님에게 줘야 한다.

추첨은 매달 했는데 반드시 경찰관이 입회한 공개 장소에서 해야 한 다. 주로 시청에서 추첨했다. 시장은 제1종 장소용 복권의 추첨이 완료된 즉시 당첨복권의 번호, 등위, 복금액, 복금청구기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사진 1은 1965년 정복을 입은 경찰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입회한 가

운데 추첨하는 장면이다. 추첨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종 유홍음식점 복권이고 다른 하나는 다방용 복권 번호를 추첨하는 통으로 추측된다.

철길 위에 놓인 다리를 운교(雲橋)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냥 ‘구름다리’라고 부른다. 기차가 달 리는 철길 위를 걸어 다니니 마치 구름 위를 거 니는 기분이 들어서 이같이 부른 듯하다. 인천 에는 대표적인 구름다리 화평운교가 있다. 옛 행정자료에는 이 운교를 ‘전동(錢洞)운교’라고 써있는데 전동이란 지명이 지금의 ‘전동(典洞)’ 과 차이가 있다.

이 운교는 경인철도가 개통되던 즈음에 7.5m 높이로 설치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때는 나무 로 만든 작은 목교였다. 자동차가 거의 없던 시 절로 사람들이 주로 다녔고 기껏해야 우마차나 인력거 통행이 전부였기 때문에 목교라도 충분 히 버틸 수 있었다. 썩지 말라고 검은 염료를 발



2



3



4

- 1 유홍음식점 영수증 복권 추첨 모습(1965년)
- 2 전동운교 확장 공사 장면(1965년)
- 3 전동운교 확장 후의 모습, 전동변전소와 전동교회가 눈에 들어온다(1965년).
- 4 조심조심, 학익동 고인돌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작업(1971년)

랐는데 일본인들은 이것을 흔히 ‘흑교’라고 불렀다. 후에 철근 콘크 리트 다리를 다시 설치했다.

1967년 2월 3일 운교 확장 공사가 착공되었고 그해 6월 2일에 준공 되었다. 확장 전후 길이는 똑같이 폭이 5.8m에서 15m로 두 배 이 상 넓어졌다. 이 운교 확장으로 도심지에서 중공업지대가 원활하게 연결되었다고 인천시는 홍보했다. 전동이나 송월동에서 화수동 가 는 길이 편해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 운교를 ‘인천극장 가는 구 름다리’라고 얘기했다.

사진 2는 확장 공사하는 장면이고 사진 3은 확장 후의 모습이다. 화 평동 쪽에서 바라 본 운교 뒤로 전동변전소가 보인다. 당시 도심지의 전력을 공급했던 중요한 시설이었다. 1990년대 초 변전소가 없어지 면서 그 자리(약 2천500㎡)를 옆에 있는 전동교회가 구입하려고 했 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현재 빌라가 들어서 있다.

‘영차 영차’ 도르래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돌을 옮기고 있다. 이 거대 한 돌은 청동기시대 무덤으로 알려진 지식묘(고인돌)다. 사진 4는 1971년 5월 12일 학익지석묘를 자유공원으로 옮기는 장면이다. 원래 이 지석묘는 문학산 인근 학익동 소년교도소(인천구치소) 옆에

있었다. 이 지역에 원래 고인돌 7기가 있었으나 일제가 소년교도소를 지으면서 6기를 없애버렸 다. 그러다가 1971년 소년교도소를 확장하면서 하나 남은 이 학익지석묘를 당시 자유공원 내 에 있던 인천시립박물관(현 제물포구락부) 옆으 로 옮긴 것이다. 이 고인돌은 1990년 시립박물 관이 옥련동 현 위치로 이전하면서 다시 옮겨졌 다. 이사를 할 때마다 청동기 할아버지의 영혼 은 잘 따라왔는지 궁금하다.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능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 름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담 흘리고 있는 우리 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0회 정기연주회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Ⅳ**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 시리즈의 네 번째 무대는 베를린 캄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인 위르겐 브론스의 지휘로 바그너 오페라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서주와 중주,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을 선보인다. 또 플루티스트 김세현과 함께 고전적 양식의 형식미에 충실한 메르카반테의 플루트 협주곡 E단조를 들려준다.

일시 : 9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밴드데이Ⅳ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 〈밴드 데이〉는 매력적인 밴드들의 음악을 작은 소공연장에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다. 기타를 맡고 있는 조웅과 베이스의 임병학으로 구성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는 절로 흥이 나는 장단과 에너지로 팬들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오래된 남자와 여자가 스틸라를 탄다'는 뜻의 재미있는 이름을 지닌 이들은 심플한 비트 위에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윤곽을 잡아가는 일렉기타와 베이스의 리프가 합쳐져 오래된 복싱장면의 투박한 에너지를 떠올리게 한다.



일시 : 9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2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모닝콘서트Ⅲ
장일범의 오페라 이야기**

바쁜 오전 시간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는 오전 11시,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모닝콘서트〉!
9월에는 KBS 클래식FM 음악풍경, 생생클래식을 거쳐 현재 '장일범의 가정음악' DJ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을 만난다. 그는 푸치니의 '라보엠', 베르디의 '리골레토',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등 위대한 오페라의 주요 장면과 아리아를 곡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풀어낸다.

일시 : 9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커피콘서트Ⅶ
첼리스트 양성원의 '20years of friendship'**

전석 1만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커피콘서트!
가을의 문턱 9월에는 "넘치는 상상력과 빛나는 테크닉,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음정의 연주"라는 평을 받으며 한국의 대표 첼리스트로 자리 잡은 양성원이 그의 음악친구들과 함께 한다. 일본과 음악적 교류를 맺은 지난 20년의 시간을 기념하는 이번 연주는 그의 아내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은식, 동경에대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하고 친밀한 무대로 꾸민다.



일시 : 9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Exhibition

**이달의
展**

~9월 5일 제21회 인천가톨릭미술가회경기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9월 22일 피카소의 절대미 - 고향으로부터의 방문(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0월 6일 정전60년 특별기획 2013 평화미술프로젝트 <백령도_525,600시간과의 인터뷰>展(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볼 등)
9월 3일~9월 10일 十人十色(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9월 6일~9월 12일 이글스 아트페어(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9월 6일~9월 29일 아! 백령도 Oh! Baengnyeong Island(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9월 24일~10월 1일 중등미술교사 연구회(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9월 27일~10월 4일 고기범의 책과 함께 상상속으로(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SUN 1	MON 2	TUE 3	WEN 4	THU 5	FRI 6	SAT 7
방귀대장 똥뽕이와 마법사 아그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3만원 ☎오름기획 031-258-9054 유지협 <성남공작 아가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 전석 3만원 ☎극단삼년호 032-514-2050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열쑤> 소리꾼 장상희 오후 5시 /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무료 ☎032-875-4644	피아니스트 이상미와 함께하는 영화 속 클래식음악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전석 1만원 ☎인음캠퍼오케스트라 032-888-8770	브런치 콘서트	모닝콘서트Ⅲ <장일범의 오페라 이야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전석 1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2만원, 학생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뮤지컬<몬테크리스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다스테이지 1588-0766 황금.토.개<집시의 열정, 플라멩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순속 연가인생 50주년(아머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만원 ☎032-500-2000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2만원, 학생 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뮤지컬<몬테크리스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다스테이지 1588-0766 화아무-이은주의 춤 그 열 아홉번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이은주무용단 032-835-8621 황금.토.개<전통의 함성>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순속 연가인생 50주년(아머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7시 / 3만원 ☎032-500-2000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 2만원, 학생 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8	9	10	11	12	13	14
뮤지컬<몬테크리스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다스테이지 1588-0766 뉴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 ☎(사)인천음악협회 032-873-772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열쑤> 사단법인 유광 / 오후 5시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 무료 ☎032-875-4644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 2만원, 학생 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초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883-1773 피아노로 만나는 클래식 영화음악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인천피아노협회 010-8579-8959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2만원, 학생 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연극 '경련(Convulsion)'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1만 5천원 ☎극단 DR 032-760-1005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30분 2만원, 학생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3천원 ☎032-507-5996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초대 ☎인천치매관리사업지원단 032-820-4077 밴드데이Ⅳ<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연극 '경련(Convulsion)'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1만 5천원 ☎극단 DR 032-760-1005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2만원, 학생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브런치 콘서트'<타블레아의 비행>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김동 후불제 '나눔 꽃 티켓' ☎032-580-1155	개나리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황금.토.개<시원강의와 함께하는 땀방함>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052 연극 '경련(Convulsion)'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1만 5천원 ☎극단 DR 032-760-1005 인천시립교향악단 초청연주회 '가을(我)'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무료 ☎032-860-8505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 2만원, 학생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제5회 빛·소리·색 합창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투디오 제비(소공연장) 오후 2시 8천원, 단체 5천원 ☎032-453-5713	황금.토.개<일비장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연극 '경련(Convulsion)'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8시 / 1만 5천원 ☎극단 DR 032-760-1005 제33회 인화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032-860-8505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5시 / 2만원, 학생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제5회 빛·소리·색 합창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투디오 제비(소공연장) 오후 2시 8천원, 단체 5천원 ☎032-453-5713
15	16	17	18	19	20	21
국악의 만남 아시아의 소풍!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예전전통국악예술단 032-567-4075 연극 '경련(Convulsion)'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3시 / 1만 5천원 ☎극단 DR 032-760-1005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열쑤> Band AUX / 오후 5시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 무료 ☎032-875-4644	연극 '갈매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3시 / 2만원, 학생1만원 ☎MR레퍼토리 032-505-5995	음악이하는 판소리극 '석순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9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3천원 ☎032-505-5995	순속 연가인생 50주년(아머니)			
22	23	24	25	26	27	28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열쑤> 일화영 명창 오후 5시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무료 ☎032-875-4644		미추홀! 젊은 국악이 외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미추홀아트센터 032-518-1511 제4회 뮤지컬악이 플랫폼상설장기연주회 인천아트플랫폼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초대 ☎뮤직플레이플랫폼양성빌 010-6204-6431	커피콘서트Ⅶ 첼리스트 양성원의 "20years of friendship"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8이츠 1588-2341 놀이 마당극 '힐힐 간다'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1만원 ☎극단 마루한 032-760-1005 인천교동방송과 함께하는 트라이볼 <청춘콘서트> 희수이는 왜 다방에 갔을까?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032-760-1014 오페라 갈라콘서트 <카르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 1만원 ☎032-500-2000	제21회 청소년 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인천청소년교향악단 032-438-6040 놀이 마당극 '힐힐 간다'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1만원 ☎극단 마루한 032-760-1005 놀이 마당극 '힐힐 간다' 오전 11시, 오후 4시 / 1만원 ☎032-760-1014 오페라 갈라콘서트 <카르멘>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1시 / 1만원 ☎032-500-2000 로맨티카리베의 '집시제즈Project'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3천원 ☎032-505-5995 고재경의 마임콘서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극극장(대공연장) 27 오후 4시, 28 오후 3시 1만 5천원, 학생 1만원 ☎032-453-5713	제330회 정기연주회 (Maestro & Rising Star In IncheonⅣ)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4시 / 1만원 ☎극단 마루한 032-760-1005 놀이 마당극 '힐힐 간다' R석 4천원, S석 3천원, 시아정애식 1만원 ☎032-500-2000 로맨티카리베의 '집시제즈Project'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3천원 ☎032-505-5995 고재경의 마임콘서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극극장(대공연장) 27 오후 4시, 28 오후 3시 1만 5천원, 학생 1만원 ☎032-453-5713	황금.토.개<울집과 행복한 함창>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032-420-2742 놀이 마당극 '힐힐 간다'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원 ☎극단 마루한 032-760-1005 린나미라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틀 오후 4시 / 무료 ☎032-760-3457 어린이를 위한 토요일음악회 '인크레더블' 캠퍼스아트시티 3층 영성관 오후 2시 / 무료 ☎032-850-6018
29	30					
오정혜 소리이야기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1층 4만원, 2층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3인천안무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사)인천안무가협회 032-438-2004	놀이 마당극 '힐힐 간다'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원 ☎극단 마루한 032-760-1005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열쑤> 연희림피니 유희 / 오후 5시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 / 무료 ☎032-875-4644					

얼쑤!

흥겨움에 어깨춤이 절로~

아침 저녁 선선하고 부드러워진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움을 느낀다. 특히 9월에는 우리의 명절, 추석이 있어 마음이 좀더 여유롭고 풍요롭다. 이번 가을은 우리의 전통 문화 나들이를 계획해 보자. 가슴 깊이 우리나라의 흥겨움에 어깨춤이 절로 ‘얼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글 김윤경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먼저, 소리를 통해 한국의 미를 알리는 배우, 영화 〈서편제〉의 히로인 오정해가 인천 관객들을 찾아온다. 오정해의 소리 이야기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무대로 관객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의 소리마당이다. 90여 분 동안 국내 최고의 연주팀 앙상블 ‘시나위’와 함께 타령에서부터 판소리, 민요, 단가, 어머니에게 바치는 목표의 눈물 등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오페라 축배의 노래로 시작한 성악 앙상블 ‘Free Soul’과 신명나게 펼쳐는 민요 배틀은 흥겨움을 더한다. 또 송도 트라이볼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를 10월까지 진행한다. ‘얼쑤’는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선보이고,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퓨전국악 최고 연주자들의 모습을 상설로 볼 수 있는 자리다.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을 기념해 인천의 역사, 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공연은 제 9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다. 관람 예약은 트라이볼 홈페이지(www.tribowl.kr)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예약 잔여분에 대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인천의 젊은 국악인들로 이뤄진 인천국악관현악단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미추홀! 젊은 국악이 외치다’라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의 전래놀이와 국악을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창작하고 각색해서 진행하는 어린이 국악뮤지컬 ‘신통방통 굽단이 방귀’를 문학경기장 내 문학시어터에서 연다.



오정해의 소리 이야기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2시, 5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1층 4만원, 2층 3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2013 인천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미추홀! 젊은 국악이 외치다’

일시 : 9월 24일(화) 오후 7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무료
문의 : ☎518-1511

2013 전통예술 상설공연 ‘얼쑤’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송도 트라이볼
티켓 : 무료
참여방법 : 사전예약(www.tribowl.kr) 및 잔여분 현장 접수
문의 : ☎875-4644

어린이 국악뮤지컬 ‘신통방통 굽단이 방귀’

일시 : 9월 4일(수)~13일(금)
장소 : 문학경기장 내 문학시어터
티켓 : 전석 1만원(다문화 가정 어린이 무료관람 지원)
문의 : 좋은음악 소리랑 ☎327-0321 www.sorirang.net



QR코드를 찍으면
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흔적을 쫓다

비어있는 공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공간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어떤 추억들이 깃들어 있을까 상상하면서,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아쉬움마저 느끼게 한다. 여기, 오랫동안 끈질기게 비어있는 공간의 흔적을 쫓아 고스란히 세상 밖으로 담아낸 전시회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한때로,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운 시간으로 기억되는 추억들이 공간 가득히 담겨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사진작가 장수선이 2013년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가정동 재개발 구역에 놓였던 주택 안팎의 사진전 ‘가정동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기록’을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의 사진공간 배다리 외 두 곳에서 펼친다.

작가가 기록한 서구 가정동 재개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루원시티’라고 불린, 국내 최초 입체복합도시의 모형을 선보여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선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철거하는 2012년 하반기 전까지 ‘유령도시’로 전락해 현재는 과도한 개발주의의 한 모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런 과정 중에 작가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근 2년에 걸쳐 찍은 사진들 가운데 주택과 관련한 사진들을 모아 이번 전시회를 연다. 단순히 재개발의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고, 사람이 떠난 후 방치된 집합주택과 단독주택, 아파트의 외관과 내부를 통해 루원시티의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가정동의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꿈을 꾸고 살았으며, 루원시티라는 꿈의 도시가 중단된 지금, 과연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서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있는지를 방치된 주택에서 찾고자 했다.

집합주택의 반 지하가 수년 째 방치된 채 곰팡이가 피고 물이 찔음에도 때때로 아름다워 비현실적인 영화의 세트장처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 철근콘크리트 외벽 그 자체가 내부인 아파트의 지하에서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와 경비원 아저씨들이 식사를 하고 때로는 휴식을 취한 흔적이 남은 공간에서 과연 사람의 공간은 무엇인지, 동시에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진다.



가정동에서 -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기록 2011. 9~2013. 8

작가명 : 장수선
기간 : 9월 6일(금)~15일(일)
후원 : 인천문화재단
입장료 : 없음
관람시간 : 오후 12시 30분~오후 7시 30분, 9일(월) 휴관
전시장
사진공간 배다리 : 동구 금곡동 14-10 ☎070-4412-0897
한 점 갤러리 : 동구 창영동 15-7 ☎070-8227-0857
전 모닝글로리 매장 : 아벨 서점 옆 건물

인천, 창조도시로 발전 기대

박근혜 대통령, 인천시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업무보고 광역단체로 인천을

선택한 것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환경 분야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잇따라 들어서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창조경제에 맞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있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우리는 이날 창조경제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조적 문화융성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거점도시, 시민중심 맞춤형 지방 3.0 구현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희망의 새 시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되겠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천은 최첨단 공항과 세계 수준의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까지 더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다”며,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참석자들과 ‘투자유치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또 박 대통령은 남동공단의 전자회로기판 및 차량제어장치 생산 중소기업인 세일전자를 방문, “지금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이 일자리 문제인데 그것도 결국은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용현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 시장 방문은 원래 일정에 없었지만 “민생 현장을 살펴보자”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갑자기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송 시장과 15분 가량 시장을 돌면서 시민·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했으며, 호박엿과 떡을 직접 구입하며 장바구니물가를 살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66



규제 개선 시민아이디어 공모

우리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또는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 규제,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법령 등이다.

시민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와 이메일(incheonlaw@korea.kr) 등으로 접수한다.

최우수상 1명에 상금 50만원을 비롯, 수상자 7명에게는 총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문의 : 시 기획관리실 ☎440-2203

송도 G타워에 국내 금융기관 5곳 입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설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지난 달 20일 하나은행이 문을 열면서 이 건물에만 국내 금융기관 5곳이 입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이종철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타워 문화동 2층에서 하나은행 송도 GCF 지점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7월 17일에는 KB국민은행 골드앤와이즈송도PB센터가 오픈했고, 지난 4월부터 신한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이 이 건물에 차례로 입주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잇따른 입주는 세계환경은행으로 불리는 GCF 사무국과 건물에 유치를 추진 중인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금융권의 전략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83

인천의료관광재단, 결혼건강 경비 상품 출시

인천의료관광재단이 웨딩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이패밀리SC와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웨딩+건강&뷰티’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달 20일 협약을 체결한 의료관광재단은 인천의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웨딩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혼부부 전용 건강검진, 라식, 라섹수술, 피부관리, 치아관리 및 스파 상품 등으로 웨딩과 의료상품을 연계한 ‘웨딩 건강검진 캠페인’ 행사를 시작했다.

인천의료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상품에는 인천의 지리적 위치와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설립된 아이패밀리SC(구, 아이웨딩)는 중국 상하이 지사를 통해 중국인 신혼부부를 국내로 유치하고 있는 글로벌 패밀리 서비스 기업이다.

문의 : 인천의료관광재단 ☎260-3115



음식점 갈 때 가방에 쏙, 외국어 회화책자 제작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으로 인천을 찾는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기초 외국어 회화 책자 7천500권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회화 책자는 영어회화 4천300권, 중국어 3천200권으로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태의 소책자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손님맛이에 유용한 표현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했다.

또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특별한 음식문화와 중국인의 음식문화를 소개하고, 외국인 손님맛이 접객 에티켓도 담고 있다.

책자는 이달 중으로 각 군·구에 배부해 외국인 편의 음식점 종사자의 외국어 교육 교재로 활용한다. 또 모범 음식점 등 우수 음식점(1천337곳)과 특색음식거리 21개 지역 음식점(617곳)의 자체 교육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 시 위생정책과 ☎440-2763



주안7동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달 19일 남구 주안7동 주택밀집지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다. 송영길 시장과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 등이 지정식에 참석

한 가운데 안전마을 현판을 달고 일대 주택 110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 설비를 보급했다.

이번 행사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보급하는 한편,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주민 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했다. 안전마을로 지정되면 소방 설비가 확충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이 확대된다.

한편 소방본부는 2011년부터 이날까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높은 주택 밀집지역 49곳을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마을 내 3천801가구에 소방 설비를 보급했다.

문의 : 인천소방안전본부 ☎870-3052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 조성사업 9월 착수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시가 신청한 청라국제도시 내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지난 달 12일자로 승인·고시했다.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76만7천㎡에 7천584억원(국비 595억원, 시비 1천475억원, 민자 5천514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국책 사업으로, 로봇산업진흥시설(로봇산업진흥센터·로봇연구소)과 유원시설(테마·워터파크), 부대시설(콘도·상업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이달 26일 공사에 착수해 로봇산업진흥시설은 2015년, 유원시설과 부대시설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6년 로봇랜드를 완공하면 인천이 로봇산업의 기술개발과 보급, 로봇 레저문화의 창출 등 로봇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시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440-3107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 ‘합격점’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6대 후반기 원구성 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1년 동안 총 45회에 걸쳐 100여 개소의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이성만 의장은 21회에 걸쳐 민생현장을 방문했고,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45.1%가 완료되고 39.2%가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의회의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평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성만 의장과 상임위 의원 23명과 함께 방문한 민생현장은 원도심 지역, 복지시설, 중소기업, 교육, 일자리 기관 등 총 28개소다. 건의사항은 총 51건으로 43건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며, 향후 재검토 2건, 추진불가 6건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80%가 넘는 높은 건의사항 이행률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시의원, 관계기관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한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다.

이성만 의장은 “추진불가로 평가된 6건도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민간사업의 범위, 단기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항으로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사항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령병원 신축현장 및 대청보건지소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공사가 진행 중인 백령병원 신축현장을 지난 7월 28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29일에는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청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백령병원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1백59여 억원으로 2012년 10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규모는 관사 1개 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병동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과 위원들은 그 자리에 함께한 김장근 보건복지국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및 관계자들에게 그동안 북한과의 문제로 잠시 중단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만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 발간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8일, 전국 최초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 책자를 출간했다.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령 등 규정의 해석상 애매한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판례 70건, 안행정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165건, 의회운영 해설 등 총 330여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회운영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서 발간을 주관한 시의회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중에 출간된 책들이, 수록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판례나 유권해석을 함께 수록하지 않아 객관적인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고민 끝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 최초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를 펴내게 되었다.”며 “이 책을 단초로 더 좋은 자료집을 많이 출간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실무서를 시의회내 모든 의원과 직원들은 물론 시내 기초의회와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하여 활용 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달 20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시의회 이도형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중 최대 7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사업 추진위원회가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된 매몰비용의 70% 이내를 군·구가 지원하고 해당 기초단체가 보전한 매몰비용은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인천시내 전체 정비사업 구역 145곳 가운데 추진위 구성 및 정비구역 지정 구역 46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역이 사용한 예상 매몰비용은 254억 여원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할 경우, 자치단체 예산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서머스쿨 외국인 학생 80여 명 의회방문

인하대학교 서머스쿨 외국인학생 80여 명이 시의회와 기능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지난달 16일(금) 시의회를 방문했다.

서머스쿨은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총 3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 인하대학교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50%, 중국 30%, 기타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카자흐스탄 20%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한 외국인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동영상을 시청하고 이성만 의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성만 의장은 “외국인 학생들의 시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인천의 근현대사의 역사와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짧지만 소중한 인연을 맺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래도시 인천의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210회 임시회 14일간 일정 개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규칙안 등 의회에 상정된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8일간 시와 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던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 편성 사유 미발생(가용재원부족 등)으로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아 4일 단축됐다.

‘교육청 사회적기업지원조례제정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지원조례 제정보고회’를 가졌다.

이재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청사회적기업 지원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및 교육청 관계자와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의정아카데미’ 운영 활발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3년도 상반기에는 총 15회에 걸쳐 621명이 참여했는데 그중 학생 의정체험 프로그램 총 6회 172명, 차세대 정치 지도자과정 총 2회에 60명, 시민 의정 체험에 1회 48명, 본회의 학생방청에 총 6회 341명이 참여했다. 의회소개, 스피치 특강, 모의의회 시연, 의원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비해 신청이 3배로 증가하는 등 교육적 측면과 직업체험 차원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학생 의정체험 5회, 청소년 의회교실 1회,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1회, 방청 6회 등 총 13회에 걸쳐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Info+box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9월 도서관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원화전시회 '동그렁덩 동그렁덩'	9월 2일(월) ~14일(토)	로비(1층)	전체	440-6662~4
한운기작가전	9월 4일(수) ~22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33
술 체험 행사 '애들아! 술에서 놀자'	9월 7일(토) 10:00	남동문화공원	초등 3~4	8월 26일~마감 시 (홈페이지 접수) 440-6662~4
'김재진'시인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9월 28일(토) 14:00	강당(지하1층)	전체	9월 11일~마감 시 (홈페이지 접수) 440-6662~4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 1층) ※홈페이지 참조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역(지하 2층) 미추홀도서관(1층 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를 참고하세요.

2013년, OBS 연중캠페인

“사람世上을 만듭니다”

채널안내 670-5500 , 뉴스제보 670-5555

OBS, 전기현의 씨네뮤직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5분 / 팝 칼럼니스트 전기현이 진행하는 <전기현의 씨네뮤직>에서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세계 각지의 문화적 지평을 간직하고 있는 영화와 그 영화가 품고 있는 음악의 다양성을 소개한다.

OBS채널 안내



착한가격업소 애용하세요

불황과 고물가 시대를 이기는 방법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해 보자. 착한업소 이용에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중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347개('13.8.10.기준)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업종 및 기준으로는

모든 개인서비스업소가 지정 가능(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하며, 지정기준은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이며,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중요한 지정기준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애용해 주세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이용하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알뜰한 소비생활로 지방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홈페이지 mulga.go.kr

문의 : 440-4209

다문화가족 직업역량강화 지원

인천YWCA와 포스코는 다문화가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추석맞이 다문화 요리축제

결혼이민 여성과 함께 다문화 요리축제가 이달 11일(수) 오후 2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로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 모두 참여 가능.

운전면허 온라인 교육 '두근두근 드라이빙'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의 동영상 강의를 7개국어로 제공.

문의 : 424-0524, wonderfuldriving.com

제1회 인천평생학습 박람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평생학습 박람회를 마련했다.

일시 : 9월 27(금)~28(토), 2일간

장소 :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주제 :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인천

참여인원 : 약 3만명(인천시민, 평생학습도시, 학습기관 등)

문의 : 568-4192



Info+box

'서부여성회관' 제4기 수강생 모집

서부여성회관은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직장인 및 계절에 맞는 다양한 테마 특강을 새롭게 마련했다.

교육과목 : 자격증취득교육, 취업·창업교육, IT전문교육, 어학교육, 문화아카데미, 웰빙건강교육, 주말가족교육, 단기특강

교육기간 : 10월 7일(월)~12월 21일(토), 3개월 과정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인천 거주시민

(정원의 20% 범위 내 남성수강 가능)

모집인원 : 8개 분야 76개 과정 1천537명

접수기간 : 9월 2일(월) 오전 9시~10월 19일(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 수강신청

문의 : 458-7360~5

2013 송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참가자 모집

GCF 사무국은 2013 송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주제 : 기후변화-당면 과제와 장기 목표

부주제 : 다가온 기후변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시 : 11월 2일(토)~4일(월)

장소 : 송도컨벤시아

모집인원 : 국내·외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참가자 300명,

참관인 300명

모집기간 : ~9월 16일까지

방법 : 온라인 등록(www.smcop.org)

등록비 : 무료

문의 : smcop@smcop.org

친환경 농산물 홍보 '한마음대회' 개최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한마음대회'를 연다.

주제 : 인천농업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체험

일시 : 9월 6일(금)~8일(일)

장소 : 계양구청 광장 및 6층 강당

참가대상 : 농업인, 생활개선, 유관기관, 초청인사, 소비자 등

행사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식후 부대행사

문의 : 440-6908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시립박물관은 9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가 당신을 기다린다.

주제 : 알록달록 폭신평신, 천연염색 쿠션

일시 : 9월 28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3시

대상 : 회당 아이를 둔 가족 15팀

장소 : 박물관 3층 해넘이방

신청방법 : 9월 24일(화)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접수

참가비 : 재료비 6천원

박博 장場 대대 소小 토요일

주제 : 2명의 가족이 참여하는 박물관 체험

일시 : 9월 14일(토) 매 학기 중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3시

대상 : 오전 저학년(1~4학년), 오후 고학년(5~6학년)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

장소 : 박물관 3층 해넘이방

신청방법 : 9월 10일(화), 오전 9시부터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참가비 : 무료

2013 야외음악회 '가을의 초대'

가을밤 박물관 야외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탕고페스티벌에서는 재즈, 국악, 클래식 스타일로 연주한다.

일시 : 9월 14일(토),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우현마당

출연 : 라벤타나, 김효영생황트리오, 탕고댄서 서배건

문의 : 440-6732

생명지킴이 활동보고대회

인천서구건강증진센터는 다양한 문화와 자살예방 활동을 연결하는 문화축제를 연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친숙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이 행사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주제 : 생명지킴이 활동 보고대회

일시 : 9월 28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장소 : 오전 - 검암역사 세미나실

오후 -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내용 : 오전 - 생명지킴이 활동보고 및 간담회

오후 - 간단한 정신건강 상담 및 캠페인, 홍보

주최, 주관 : 서구보건소,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상 : 서구센터 1기, 2기 생명지킴이 60명 및 지역주민

문의 : 560-5006, 560-5039

Info+box

창업 및 경영개선사업 지원자 모집

인천 사회적은행인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창업자원을 위해 2013년도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담보 저리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으로 창업 과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장 또는 창업예정지가 인천인 만 20세 이상의 인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제외)로서

- ① 3인 이하 가구는 연간 세전 총가구 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자
- ② 4인 이상 가구 월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 또는 지역건강 보험료가 다음 금액 이하인 자

구 분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3,098,000원	3,665,000원	4,237,000원
지역건강보험료(월)	90,000원	100,000원	120,000원

③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장·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해당자
※ 사업예정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보증 추천 및 대출

지원내용

(창업교육 및 훈련지원) 창업관련 기초교육 및 실무능력 향상 지원 (자금지원) 2천만원 이내의 창업자금(임차보증금 등)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연 3% 이내, 4년 이내 상환(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 월균등분할상환)

(경영지원) 자금 상환 시까지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지원

문의 : 873-3800

여성의광장, 문화강좌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 여성의광장은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어학교육, IT 등 당신의 꿈을 펼칠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

과목 : IT전문교육, 어학전문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문화· 교양교육, 토요강좌, 단기과정

교육기간 : 10월 7일(월)~12월 21일(토), 3개월 과정

모집대상 :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자(필라테스, 재즈&방송댄스, 태보&다이어트댄스, 벨리댄스를 제외한 전과목 20% 범위 내에서 남 성도 모집)

모집기간 : 9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선착순 접수

(여성의 광장 홈페이지 '수강신청')

※ 신청 시 수강료를 결제해야 수강등록 완료됨

신청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통합예약현황(해당과목 에 '대기'이면 접수완료된 상태)

수강료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문의 : 815-7101~3

유용한 주택연금과 전세자금보증 활용 안내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연금 : 노후생활의 동반자

주택연금의 혜택

- 평생 동안 배우자와 같이 주택연금 수혜, 평생 동안 내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
- 재산세 25% 감면

가입요건

- 연령 :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

월지금금 예시	주택가격	2억	3억	5억
	가입연령			
	60세	46만원	69만원	115만원
	70세	67만원	100만원	167만원
	80세	104만원	156만원	261만원

주택연금 정산(부부 모두 사망 시)

- 주택가격 > 연금수령액 → 남는 부분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
- 주택가격 < 연금수령액 →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441-2159, 2172

전세자금보증

담보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제도

-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 또는 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연 3.3%(단, 저소득가구는 2.0%)

대출한도 : 신규, 연장 전세금에 소요되는 자금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이내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자료 수집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한다. 장릉 김숙이 보관하고 있는 민주, 평화, 인권과 관련된 자료를 기증하면,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초석이 된다.

문건자료 : 단체의 성명서, 자료집, 간행물, 회의록, 일기 등

박물자료 : 현수막, 포스터, 메달, 의상, 그림, 배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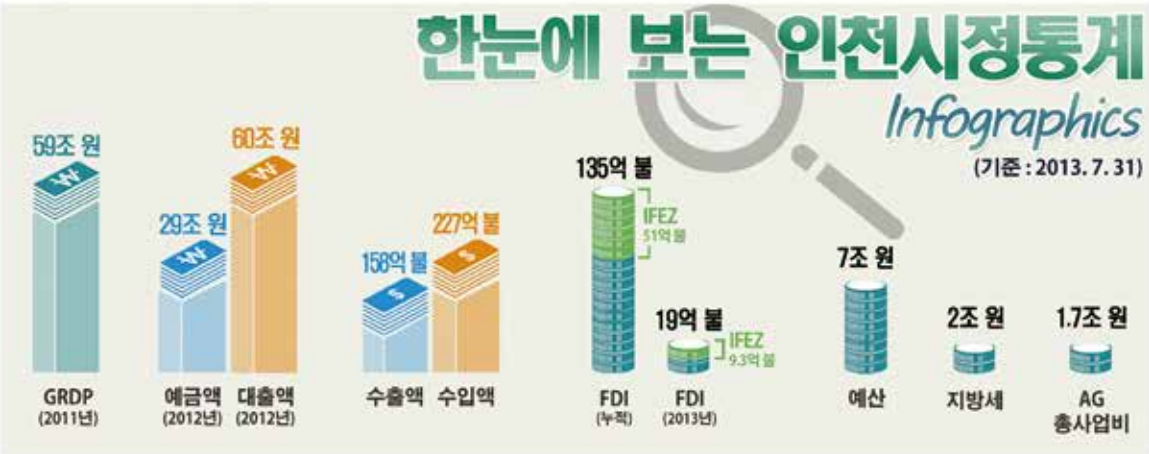
멀티미디어자료 : 오디오, 비디오, 사진, 필름, CD, DVD 등

구술자료 :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사건의 구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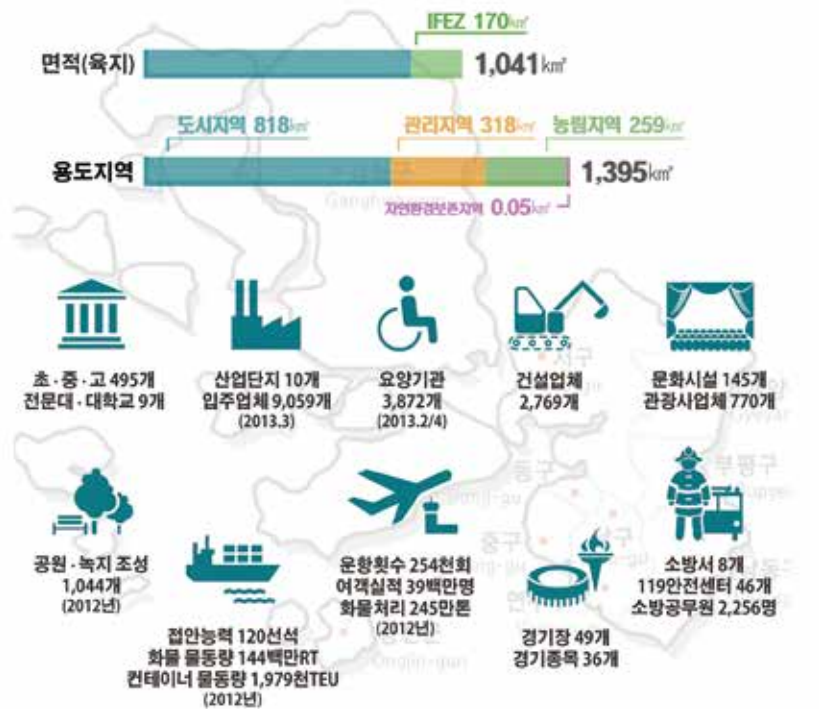
도서류 :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등

문의 : 862-5353

Info+box



10개 군·구	146개 읍면동
중 구	11
동 구	11
남 구	21
연수구	12
남동구	19
부평구	22
계양구	11
서 구	19
강화군	13
용인군	7



□ 인구 대비 주요통계





김난도의 내:일

김난도,이재혁 | 오우아 | 2013

청춘을 위로하는 청년들의 멘토이자 트렌드 전문가로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날카롭게 진단해 온 김난도 교수가 청년들의 현실적인 아픔이자 고통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방법론과 데이터를 총동원해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미래 직업시장을 뒤흔들 6대 ‘잡트렌드’를 소개한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정여울 | 21세기북스 | 2013

실패해도 이루지 못해도 그저 아름다운 청춘에게 저자가 가슴속에 여전히 시린 꿈으로 빛나는 청춘을 다독이고 구슬리고 보듬으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방향, 여행, 타인, 직업 등 20개의 키워드를 제시해 자신의 20대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글만리(1~3)

조정래 | 해냄출판사 | 2013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약 3개월여 동안 매일 연재되며 독자와 함께 호흡해 온 작품이다.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며 세계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중국에서 벌어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각국 비즈니스맨들의 생존 전쟁을 그리고 있다. 전방위적 자료 조사와 2년 여에 걸친 현지 답사로 다층적인 중국 경제의 실상과 수천 년 역사, 문화까지 생생하게 써내려갔다.



당신에게, 제주

고선영 | 꿈의지도 | 2013

제주도의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여행지를 소개하는 감성 가이드북이다. 두 번째 제주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제주도에 정착한 여행작가 부부가 엄선한 비밀스러운 여행지를 선보인다. 4년 동안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소소하게 담아냈으며, 일반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는 트렌디한 장소를 선보인다.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그림책 족보	황경숙	미음상자	내 아이를 위한 그림책, 어떻게 골라야 할까?
2	〈김난도의내:일〉	김난도, 이재혁	오우아	내 일을 잡으려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11가지 키워드
3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짐 홀트	21세기북스	역사를 관통하고 지식의 근원을 통찰하는 궁극의 수수께끼
4	틱낫한 스님의 마음 정원 가꾸기	틱낫한, 플럼빌리지 커뮤니티	판미동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상 가이드
5	나노베이션	케빈 프레이버그, 재키 프레이버그, 데인 던스턴	세종서적	2,000달러짜리 작은 차가 이루어낸 거대한 기적
6	〈재밌어서 밤새읽는〉수학 이야기	사쿠라이 스스무	더숲	일상에서 만나는 수학!
7	〈버리면서 채우는〉정리의 기적	곤도 마리에	더난출판사	어수선한 일상을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
8	엄마의 미술관	프랑수아즈 바르브 갈	미디어섬	내 아이를 위해 엄마가 먼저 읽는 명화 이야기
9	인간과 말	막스 피카르트	볼날의책	‘말’에 대한 본질을 응시한다!
10	정글만리(1~3)	조정래	해냄출판사	거대한 중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이들의 열정과 야망!
11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정여울	21세기북스	가슴속에 품어야 할 청춘의 키워드 20
12	당신에게, 제주	고선영	꿈의지도	두 번째 제주 여행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감성가이드



시인 이세기

1963년 인천 문갑도 출생

1998년 「실천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현재 계간 「작가들」 편집주간으로 활동

주요저서

시집 「먹염바다」(2005), 「언 손」(2010)

인권산문집 「이주, 그 먼 길」(2012)

Incheon Life Story

인천 사는 이야기

‘책의 도시’ 인천, 숲속도서관에서

온 가족이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갔습니다. “아빠! 여기 책이 있어!” 아이가 신기해하며 손을 이끅니다. 하나둘 책장을 넘기며 꿈도 함께 자랍니다.

박찬용 연수구 송도미래로



미리 입어 보는 웨딩드레스

월미도전통공원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전통혼례 체험을 했습니다. “어때요, 전통식 드레스가 서양식 웨딩드레스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요?”

이현정 부평구 체육관로



송도국제도시 하늘 위로~

외손자와 송도센트럴공원에서 즐거운 한때. 아빠가 푸른 하늘 위로 비행기를 태워 주었습니다.

최명석 남동구 장송남로



붙잡고 싶은 아름다운 공간

동구 송현동의 ‘서씨 글방’입니다.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지요. 인천의 숨은 명소인데,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여 아쉽네요.

신미희 남구 경원대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자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여기가 어디?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강화에 있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 인천여객터미널

신정미 서울시 영등포구 / 강나루 경북 구미시
고영동 남구 도화동 / 신민섭 서울시 강남구

휘영청, 2000년 전 비류의 달

송도에 뜨다

개항에서 개방으로. 130년 전 인천은 외세에 의해 강제 개항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세계를 향해 그 문을 활짝 개방했다. 그러면서 프림과 커피가 믹스된 달콤한 커피처럼 제대로 '조화'된 맛을 풍기고 있다. 최첨단 국제도시와 6,70년대 모습을 간직한 구도심이 함께 '믹스'되고 있다. 인천을 한 바퀴 휘, 돌다보면 시간여행, 공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 인천을 꼭 빼놓은 공원이 있다. 이름도 인천의 옛 지명인 '미추홀'이다. 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과 함께 송도 3대 공원으로 통하는 미추홀공원은 현대와 전통이 제대로 '믹스'된 녹색 공간이다.

그림 · 글 ·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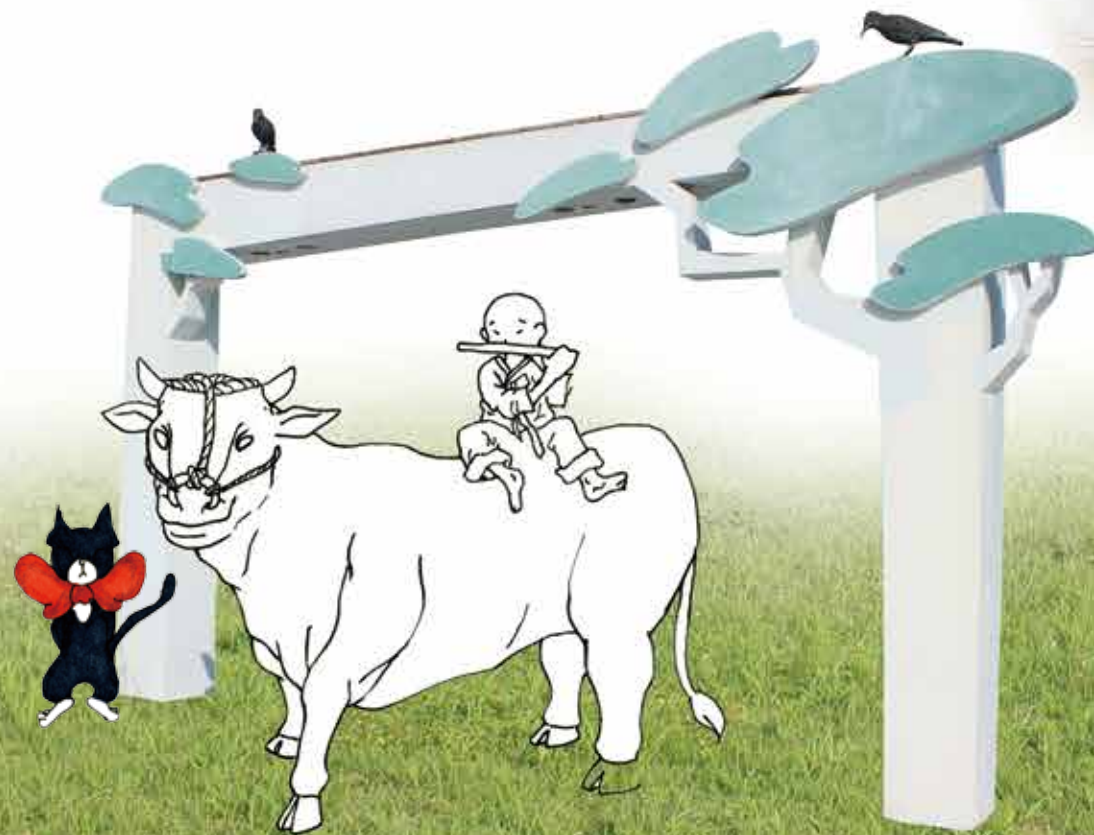
미추홀공원은 한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양식으로 조성했다. 기획단계부터 '비류건국신화'를 주제 삼아 미추홀 왕국의 역사적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완성된 미추홀공원의 모습은 미추홀 왕국, 그 이상이다. 당시 고대국가의 모습에 현재의 인천이 오버랩되면서 훨씬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위치도 그렇다. 첨단국제도시 속에 전통이라. 이쯤되니 '미추홀'을 살짝 장난스런 언어유희 놀이를 해보면 '믹스 all' 이 된다. 그래, 미추홀공원은 잘 섞은 공원이다.

미추홀공원에 휘영청 보름달이 떴다. 2000년 전 비류가 미추홀을 건국하고 문학산에 올라 달을 보며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기원했을, 바로 그 달이다. 이제 송도국제도시에는 매일 밤 무수한 달이 뜬다. 빌딩과 아파트에서 빛을 발하는 수많은 달들이 서해바다를 환히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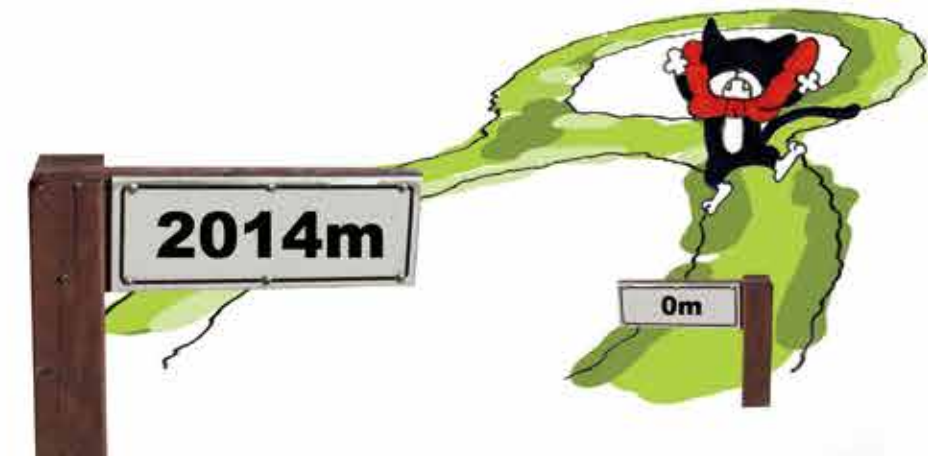
어민들의 피리소리를 나타내는 ‘옥구어적’에 다다르면, 피리 부는 소년이 나온다. 미추홀 바다를 등진 소년의 피리 소리는 공원 뒤편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 사이에 울려퍼진다. 눈을 살며시 감은 소년의 무명옷과 송도가 입은 침단기술이 대비되는 듯, ‘조화’를 이룬다.

피리 소년을 지나 반 바퀴를 돌면 ‘인화루’라고 쓰인 누각이 보인다. 경복궁의 경회루와 쌍둥이 같다. 인화루 2층 누각에 오른다. 미추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인천의 8경을 내려다본다. 산과 바다 그리고 푸른 공원이 뒤섞여 미추홀 인천을 만들어 낸다. 못가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맑다. 아, 가을인가.



공원 한가운데 큰 연못이 있다. 인천 앞바다를 상징하는 ‘미추홀 바다’다. 그 해안선을 따라 ‘팔미귀범’, ‘옥구어적’ 같은 인천 8경이 재현되어 있다. 8경은 팔미도를 도는 범선, 옥구섬 어민들의 피리소리, 장도의 단풍, 계관섬의 꽃과 같은 바위, 문학산의 아지랑이, 청룡산의 구름, 오봉산의 달 그리고 호구포로 지는 낙조를 상징한다. 인천의 산과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나타낸 것들이다.

다시 공원 산책로를 따라 나선다. 바람에 나뭇잎 부대끼는 소리가 난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미추홀의 어디쯤을 걷는 듯하다가도 사이사이 보이는 공원 밖 풍경에 ‘아, 인천이지.’ 한다. 산책로를 따라 거리를 알려 주는 푯말이 서있다. 어느덧 한 바퀴를 다 돌았는지 ‘2014미터’다. 2014? 2014? 미추홀의 산과 바다를 지나 조선시대도 둘러보고, 가끔씩 국제도시의 발전된 모습도 보다보니 어느덧 2014가 된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코앞이다. 참, 미추홀답다.





초현대식 빌딩 사이에 의젓한 한옥 두 채가 눈에 들어온다. 갯벌문화관과 다례원은 한국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기와 건물이다.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에선 한국 고유의 정취가 느껴진다. 갑자기 조선시대로 떠내려 온 것 같다. 갯벌문화관과 다례원 사이에는 운동시설이 있다. 요즘에는 쉽게 볼 수 없는 널뛰기에 올라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한국식 운동시설임에 틀림없다.

공원 한가운데 너른 마당에 들어선다. 커다란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이 열린마당을 에워싸고 있다. 인천 고양이 나, 도도(都島). 십이지신 중 하나인 쥐(子)신을 노려본다. 저 쥐(子)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고양이신이 저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고양이가 화장실 간 사이 쥐가 잔피를 부려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볼 때마다 억울하고 얄미워 죽겠다. 뱀 신에게 다가가 살짝 인사를 했다. 올해 송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 유치를 비롯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유치한 것, 무엇보다 주민들을 안녕을 지켜 준 것에 감사. 여기 열린마당은 마당놀이 같은 전통공연과 전통놀이 행사가 열려 전통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안에서는 문화강좌가 진행 중이다. 포르르르, 차(茶) 따르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규방다례를 하는 중인가 보다. 규방다례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복원·계승한 것이라고 한다. 문틈 사이로 빠끔, 들여다보니 다도를 하는 여인들의 몸짓이 정갈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갯벌을 메워 도시를 만들며 공원녹지를 조성한 지 어언 10년. 지금 송도국제도시에는 1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푸르름을 자랑한다. 송도국제도시는 ‘파크시티’다. 곳곳에 공원이 있다. 이 공원 덕분에 인공도시이지만 감성이 묻어난다. 대표적인 공원으로는 미추홀공원을 비롯해 달빛공원, 새아침공원, 신송공원,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 송도센트럴공원 등이 있다.

송도센트럴공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적 감각의 공원이다. 직선과 곡선, 넓음과 좁음, 높음과 낮음 등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산뜻하고 상쾌한 쾌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로(Pond)를 만들어 도심 한복판에서 수상택시와 카누 등 수상체험도 할 수 있다. 해돋이공원은 정보통신 발달의 콘셉트로 조성된 다양한 공간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분리된 동선에서 안전하게 자전거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달빛공원은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새아침·신송공원에서는 달빛공원과 연결된 흙길을 걸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시간의 문을 찾아서

글 장희숙 도시공간활용연구소 대표



2013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15분 선인체육관이 해체되어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진 공간은 1970년 이전의 공간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염전이다. 그 염전이 주안 8염전의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였다는 것도 요즈음 인천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없는, 놀이터로서의 염전이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면 낮에는 염전에서 밤에는 부처산을 올라갔다. 우리의 간식이 되었던 달콤한 아카시아 꽃향기를 따라 아카시아 잎을 가위바위보로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선인학원이 거대한 성을 구축하는 동안 우리의 놀이터는 점점 아주 빨리 사라져갔다. 부처산을 지키던 신성한 나무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도 선인학원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경인국도가 생기면서 염전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놀지 않게 되었다. 경제개발의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는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접혀져 갔다. 그 접힌 시간이 도심의 골목으로 남았다. 골목의 한끝에는 시간을 쫓아가다 지쳐 주저앉은 사람들이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 골목 안에 멈춘 시간들을 찾아다닌다. 그 시간 속에는 내게 클래식 기타를 들려주던 이웃집 오빠도 있었다. 그집 큰 언니는 너무 예뻐다. 이름은 하루꼬. 어느날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긴담 모퉁이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났다. 국민학교 4학년이 되면서 교실에 빈자리가 생겼다. 그 빈자리는 산업화시대를 받쳐주었던 공장 여공들의 몫이었다.

시간을 찾는 사람들을 만났다. 1902년 하와이로의 첫 번째 이민선을 탔던 분의 증손녀되는 분이 부군과 딸을 데리고 증조부가 떠났던 시간을 찾아온 것이다. 그 분들은 떠났던 그 시간의 그 장소를 찾는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민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켈릭호 승선자들의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5대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감격의 장면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문이 사라졌다.

또 한 분 쿠바 재이민의 후손이 KBS 취재팀과 다큐를 찍으러 이민사박물관을 찾았다. 카스트로 혁명군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전시된 사진과 자료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세잔교를 찾아 흔적을 더듬었지만 표지석 하나도 없으면서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세관용지 터라는 표지석을 발견했다. 보여주지 못한 것이 내 게으름 탓인 것만 같았다.

선인체육관이 붕괴되는 폭발음이 들리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무너져 내린 자리가 시간의 문이 되어 나를 향해 열린 것 같아 들어가려 하였지만 막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위에 서면 꿈속에서도 나를 부르던 추억. 아카시아 사이로 개진너로 가던 옥수수밭과 활터고개가 염전을 품고 보일 것만 같았는데...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인디언들은 말을 달리다가 문득 멈추어 선다고 한다. 자신이 너무 빨리 달려서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봐 자신의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잃어버린 것들이 시간의 주름인 도시의 골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을 보아 달라고...



그간, 별고 없으셨죠

이쪽은 죽은 자의 땅, 음택(陰宅)
저 너머는 산 자의 땅, 양택(陽宅)
음력 8월, 서산에 둥근 보름달 뜨면
산 자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죽은 자는 저쪽으로 건너간다.
오랜만에 향 내 맡으며 서로 묻는다.
별고 없으셨죠.
그래, 잘 지냈느냐.
(부평가족공원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